

"Kate Bush in a rare interview; and John Cleese reviewed." *Frontrow BBC Radio 4* 4 May 2011, London.

"A special edition of Outlook devoted to the moon and its effect on all our lives." *Outlook BBC World Service* 2 May 2011, London.

Lee Jung-eun. "Across the Universe." *Dazed & Confused Korea* May 2011, Seoul.

Jung Sang-yeong. "The Moonlight Sonata that the moon is playing and the sound of the glacier heard on the mobile phone." *Hankyoreh* (Seoul) 28 April 2011.

"Events Calendar." *The Korea Herald* (Seoul) 15 April 2011.

Jeon Hye-won. "Today's Gallery: Katie Paterson's *The sound of Vatnajokull*." *Asia Today* (Seoul) 14 April 2011.

"Katie Paterson, PKM Gallery." *VM SPACE* 11 April 2011, Seoul.

"Katie Paterson at PKM Gallery." *The Move* 1 April 2011, Seoul.

"Katie Paterson." *ELLE à Seoul* April 2011, Seoul.

"The music that became Morse code and the glacier record." *Monthly Photography* April 2011, Seoul.

"New talents: Katie Paterson." *ARTE AL LIMITE* March 2011, Chile.

"Katie Paterson." *ArtSlant* March 2011, Los Angeles.

"Katie Paterson." *Artinasia* March 2011, Hong Kong.

"Katie Paterson solo exhibition." *Daum Performance* March 2011, Seoul.

Choi Min-ji. "Katie Paterson's Seoul exhibition: Nature and space seen by scientific technology." *Hankook Economy* (Seoul) 31 March 2011.

Koh Mi-seok. "British artist Katie Paterson's Seoul exhibition: Poetic nature and space expressed through science." *Dong-A Ilbo* (Seoul) 29 March 2011.

Kim Geum-yeong. "Beautiful Moonlight Sonata that the moon is playing." *CNB News* (Seoul) 28 March 2011.

"Katie Paterson: Breaking down the distance between self and the edge of space." *Magazyn.co.kr* 28 March 2011, Seoul.

"Katie Paterson." *Mutualart.com* March 2011, London.

"Katie Paterson exhibition." *Art in Smart* March 2011, Seoul.

"Katie Paterson solo exhibition." *Dosilife* 26 March 2011, Seoul.

“PKM Gallery – Katie Paterson.” *OhmyNews* 26 March 2011, Seoul.

Cho Tae-seong. “If the moon plays the *Moonlight Sonata*.” *Seoul Shinmun* (Seoul) 26 March 2011.

“Katie Paterson exhibition.” *Artwa* 24 March 2011, Seoul.

Kim Jae-seok. “Artist interview: Katie Paterson.” *Artwa* 23 March 2011, Seoul.

Park Hyeon-ju. “Acclaimed young British artist Katie Paterson’s first solo exhibition in Korea.” *Ajou Economy* (Seoul) 23 March 2011.

Chloe Gallagher. “Katie Paterson X PKM Gallery.” *Curbs and Stoops* 18 March 2011, New York.

Kim Gyeong-gap. “Magritte, Francis, Minjun Yue. . . presenting exhibitions in spring.” *Hankook Economy* (Seoul) 17 March 2011.

“Katie Paterson.” *Beard Rock* February 2011, UK.

Kate Bush in a rare interview; and John Cleese reviewed

It's 33 years since Kate Bush had her first hit single *Wuthering Heights* at the age of 19. In a rare broadcast interview, Kate Bush talks to John Wilson at her home as she prepares to release her new disc *Director's Cut*, where she has re-recorded and re-worked a number of songs from two earlier albums.



John Cleese began his first tour of the UK last night, in which he looks back at his career in comedy and beyond. The show is called the *Alimony Tour* - Cleese has said that profits will be used to pay his latest divorce settlement. Stephen Armstrong reviews.

Ahead of the official Turner Prize 2011 shortlist announcement, Rachel Campbell-Johnston looks ahead to the artists who might be following in the footsteps of Grayson Perry, Damien Hirst, Martin Creed and Susan Philipsz.

Producer Jerome Weatherald.

Transcription

26' 45" – 28' 10"

Mark Lawson (Presenter): Who else should be on the [Turner Prize] list? And don't give us the names that are bandied around the Internet.

Rachel Campbell-Johnston (Art Critic): OK. Well, I would really like to see a young person called Katie Paterson to have come up. She came to attention first with one of her degree show pieces, which was named after some unpronounceable Icelandic glacier. It was a sound recording containing whooshing and sprishing and groaning away. You dialed direct to the glacier. She then moved on to trying to get people to imagine distant places by withholding the visual. She bounced Beethoven concerto in Morse code off the moon. She made a map of all the dead star that have ever been recorded in history, a sort of "planetscape." We are always talking about how art has got stuck and doesn't know where to go. Here's someone whose got a pretty far-reaching view. She is looking intergalactic.

ML: And there's a real sense of geography to her pieces. You mentioned that number where you dialed up the glacier and dialed the microphone that's buried in a glacier. I tried to dial that today actually. But it seems its time is up. You can't get though anymore. But I think it's a real . . . I agree, I think she is fantastic. I think she's only just out of art college, isn't she?

RC-J: I think part of the point of the Turner . . . Well, the Turner recently seems to have kept on pushing the age up, taking people over their forties. I think it would be great if it moved back to promoting or catapulting younger artists to our attention.



Outlook

02/05/2011

Extraordinary personal stories from around the world. Today: British writer James Attlee's quest to understand the significance of the moon and the experience of moonlight for people all over the world. We also hear from the American-Iranian academic Haleh Esfandiari on how the moon gave her hope when she was held in solitary confinement as a political prisoner. The moon is vital in Indian culture too, as the science writer Pallava Bagla explains and for the Scottish artist Katie Paterson the moon has been a source of inspiration. She bounced a recording of Beethoven's Moonlight Sonata in morse code off the surface of the moon.

James Attlee's book *Nocturne - A Journey in Search of Moonlight* is published by Hamish Hamilton

Broadcast on

BBC World Service, 2:32AM Tue, 3 May 2011

First broadcast

BBC World Service, 3:32PM Mon, 2 May 2011

Duration

28 minutes

Categories

Factual, Life Stories

"A special edition of Outlook devoted to the moon and its effect on all our lives." *Outlook BBC World Service* 2 May 2011, London.

DAZED

KOREAN

BE THE FIRST TO KNOW

MAY 2011 #37

HAPPY ANNIVERSARY

<데이즈드> 창간 3주년 축하 노래와 뮤직비디오

KEEP YOUR HANDKERCHIEF

나무를 숨쉬게 하는 손수건

REAL WAX SHOW

가락시장에 펼쳐 스마트 폰 패션

KRIS VAN ASSCH

한국 영화에서 영감 받은 크리스 반 아쉬 다음 음모 컬렉션

PLUS

2011 서울 패션위크 리포트

시간의 가치가 답인 오토 쿠투

배우 유지타 평범한 형

SMART

<데이즈드&컨퓨즈드>가 수집한 스마트한 관점들

ISSUE #37 MAY 2011
00000001 MADE IN KOREA



Lee Jung-Eun. "Across the Universe." *Dazed & Confused Korea* May 2011, Seoul.



THE FASHION

- 112 HERO photographer LOUIS PARK editor BO-YOUNG BAE
- 120 ALL ABOUT RUNWAY photographer JI-YANG KIM editor SHIN KIM
- 130 LIFE IS LIKE A CARTOON photographer JI-YANG KIM editor JI-HONG KIM
- 142 HEART IN HEART 캄보디아로 봉사 활동을 떠나기 전날, 유지태를 만났다.
- 150 TIME IS MONEY photographer ROE ETHRIDGE editor KATIE SHILLINGFORD
- 142 GOLD DIGGER photographer ANTHONY MAULE editor ROBBIE SPENCER
- 170 EAT THE RICH photographer YELENA YEMCHUK editor KAREN LANGLEY
- 174 2011 F/W SEOUL COLLECTION 서울 컬렉션에서 뽑은 콘셉트유일한 열 명의 패션 디자이너들.
- 182 LESS IS MORE 크리스 반 아레의 가공되지 않은 순수한 디올 욕망.

THE BACK

- 198 INSTANT NOVEL 마르셀 뒤샹을 오마주한 수잔 힐러의 사진, 인간의 본성에 대한 여성민의 소설.
- 200 ART 달과 직접 대화를 나누는 미술가 케이트 패터슨과의 인터뷰, 오용석의 개인전 [TU]에 관한 익명의 기고, etc.
- 202 FILM 전주국제영화제 추천작, 책 스페로우로 다시 돌아온 조니 뎀, etc.
- 204 BOOK 쿠바의 언론인 요아니 산체스와의 기적 같은 인터뷰, 최재훈의 소설 <퀴르발 남작의 성>에 관한 시인 오은의 리뷰, etc.
- 204 MUSIC 새 EP 앨범을 발매한 정인, 뮤지션의 트위터, 스트록스의 신보를 향한 두 개의 시선, etc.
- 208 ONE LAST WORD 스마트한 세상에서 사라져가는 것들.

ACROSS THE UNIVERSE

영국의 미술가 케이티 패터슨은 우주와 소통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

인터뷰 전에 작품을 먼저 보지 않았더라면, 아마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다.
내 작업이 그렇다. 워낙 새로운 시도들이라, 설명이 필요하다. '바트나이외쿠들 Vatnajökull'은 아이슬란드 빙하에 마이크를 설치해서 전화를 걸면 빙하가 녹는 소리를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고, '지구-달-지구 Earth-Moon-Earth'는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를 모스 부호로 바꿔 달에 보낸 후 반사된 부호를 다시 음악으로 연주했다. '달빛처럼 보이는 전구 Light Bulb to Simulate Moonlight'는 실제 달빛과 똑같은 파장을 가진 전구. '어둠의 역사 History of Darkness'는 천문대에서 촬영한 각각 다른 광년의 우주 공간 슬라이드. '소멸하는 별의 편지 Dying Star Letters'는 천문학자로부터 얻은 정보를 토대로 별의 죽음을 알리는 편지다.

우주를 하나로 묶는 연작인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연작처럼 느껴지는 것 같다. 가장 상위에 있는 주제는 달이다. 자연과 광역과 우주와 지질학 역시 중요한 주제다. 작품들끼리 의사소통을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복잡하고 힘든 작업을 왜 시작했나?
왜라, 좋은 질문이다. 나는 언제나 어떤 형태로든 예술을 하고 있었다. 어릴 때부터 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학교에서 순수미술을 전공하지 않았나?
맞다. 전통적인 미술의 영역 안에서 오랜 시간 훈련받았다. 하지만 내 작업은 자연과 우주의 미학을 표현한다. 이게 얼마나 전통적인 주제인가?

그런데 당신의 작업 '방식'에서는 전통적인 거라곤 하지도 찾아볼 수가 없다.
이상하게도, 세계를 둘러싼 거대한 것들에 시간이 갈수록 더 관심이 생겼다. 나의 상념을 어떻게 하면 평범하지 않은 방식으로 가장 잘 표현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과학에 대해선 아무것도 몰랐지만 테크놀로지가 상상을 실제로 바꾸어줄 가장 좋은 도구일 것 같았다.

아이디어는 어떻게 얻나?
그냥 머리에 퍼뜩 떠오른다. 사실 아이디어 자체는 단순하다. 단지 구체화하는 데 오래 걸릴 뿐이다. 아, 달빛을 내는 전구를 만들어보고 싶다. 하면 실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다. 내 생각이 많은 사람과 만나 노력을 거쳐 실현되는 과정 자체가 작은 전구, 녹아버릴 레코드, 슬라이드 사진 안에 모두 담긴 것이다.

그럼 진행하다 실패한 프로젝트도 많겠다.
당연하다. 만들어봤는데 이상하다든지, 실현이 불가능하다든지, 심각한 문제에 부딪혀 결국 사장된 경우도 많다. 프로젝트의 의미는 내가 부여하지만 준비를 갖춘 기술자를 찾는 것도 성패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기관이나 사람을 찾는다. 나사 같은.

나사? 나사라면, 미국 항공 우주국?
새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마다 나는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이메일을 보낸다. 거대한 기관이든 개인이든, 적임자에게 닿을

때까지. 아이디어는 떠오르지만, 작업 기간의 대부분은 기술자를 찾고 설명하고 설득하는 데 쓴다. 달빛 전구를 만들 땐 영국의 관련 기업에 이메일을 꼭 보냈다. 그중 누군가가 독일의 전문가를 소개해줬다. 빙하를 LP 모양으로 얼려 녹을 때까지 플레이하는 아이스 레코드도 혼자서 수십 번 실패했는데 어떻게 열리는지 배우고 경험하면서 결국 완성됐다.

아주 지루한 과정일 것 같다.
내 작업 모두는 어떤 결과를 얻게 될지 전혀 모른다. 덕분에, 지난 10여 년간 작업이 점점 더 즐거워졌다. 결과물은 하나의 작고 단순한 작품인데, 과정이 아주 복잡하다는 내 작업의 패러독스가 재미있는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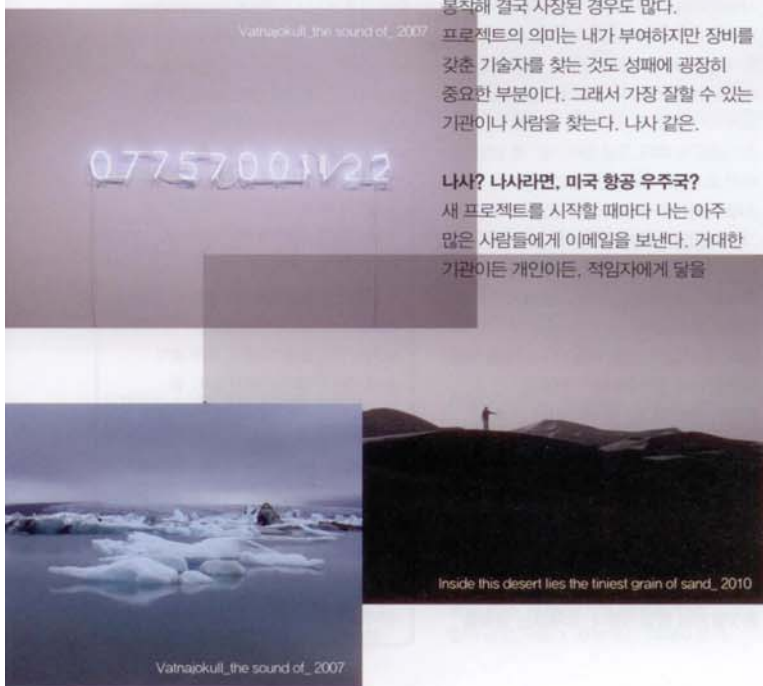
우주와 소통하려는 노력은 훌륭하다. 관객과의 소통은 어떻게 하는가?
우린 상상의 기회를 점점 잃어가고 있다. 영감을 얻을 기회보다는 주입되는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내 작업이 아마도 잊고 있었던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당신이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다 뭔가 보이고 느껴진다면, 소통이 시작된 것이다.

당신의 작품을 보면 개념미술의 장르가 더 넓어진 느낌이다. 과학 기술과 결합한 당신의 작업이 미술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나?
그렇다. 과정을 작업에 포함하는 개념미술의 정의와도 맞닿아 있다. 작품을 통해 자연의 복잡하고 거대하고 스펙터한 변화가 지구 어디에선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상상하게 하고 싶었다. 전화를 걸어 빙하가 녹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작품은 오직 자연과 당신, 둘 간의 소통이고 결합이다.

한국을 포함해 아시아에서의 첫 전시다. 지금까지 연 전시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많은 작품이 한자리에 모였다. 길고 지루한 과정이 단순한 작품 하나로 탄생하는 것, 그리고 작은 작품 하나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큰 파장을 일으킨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마치 나비효과처럼, 우주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듯이 나와 작품과 당신은 이미 우주 속에서 보이지 않게 연결되어 있다.

EDITOR_이경은

* 케이티 패터슨의 개인전은 3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PKM 갤러리에서 열린다.



Vatnajökull, the sound of, 2007

Inside this desert lies the tiniest grain of sand, 2010

Vatnajökull, the sound of, 2007

달 전파가 연주하는 ‘월광’ 휴대폰으로 듣는 ‘빙하소리’

모스부호·라디오 장치로 개념 미술
영국작가 케이티 패터슨 첫 한국전

[한겨레] + 정상영 기자



» 아이슬란드 바트나빙하 지역

달이 연주하는 베토벤의 곡은 어떤 느낌일까? 수백만 년 동안 빙하는 어떤 소리를 냈을까?

영국의 젊은 여성 개념미술 작가 케이티 패터슨(30)은 이런 의문을 품고 2007년 기상천외한 실험을 했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월광>의 악보를 모스 부호로 바꾼 뒤 이엠이(EME) 송신시스템을 이용해 라디오 웨이브 방식으로 달을 향해 신호를 쏘았다. 그는 반사되어 돌아오는 신호를 모아 모스 부호로 기록하고 또한 컴퓨터가 자동연주하는 피아노곡으로 들려준다. 이른바 달 자체에 의해 변경되고 재구성된 ‘월광 소나타’인 셈이다.

오는 5월6일까지 서울 종로구 화동 피케이엠갤러리에서 열리는 케이티 패터슨의 개인전에서는 자연과 환경, 우주에 대한 생각과 실험으로 얻어낸 다양한 개념미술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개념미술은 완성된 작품 자체보다 그 작품이 탄생하는 과정과 아이디어 자체에 초점을 맞

Jung Sang-yeong. “The Moonlight Sonata that the moon is playing and the sound of the glacier heard on the mobile phone.” *Hankyoreh* (Seoul) 28 April 2011.

한겨레홈 > 뉴스 > 문화 > 음악·공연·전시



» 사하라사막

추는 현대미술의 한 경향이다. 그는 아이슬란드 바트나빙하 지역(위쪽 사진)의 남쪽 끝에 있는 빙하에 묻어놓은 마이크로폰을 오디오 장치와 휴대폰 선에 연결해 발신자가 세계 어느 곳에 있든 실시간으로 그 빙하의 느리게 녹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했다. 또한 오스람과 협력해 달빛과 동일한 파장을 가진 전구를 만들어 '달의 방'을 꾸몄다. 또 세계 각국의 천문대에서 관측된 별의 죽음을 1년간 컬렉터에게 간단한 친필편지로 부친 것을 모아놓는 프로젝트, 사하라 사막(아래)에서 모래를 채취해 나노사이즈로 극미하게 쪼갬 뒤 다시 사막에 묻는 작업 등을 볼 수 있다. 이처럼 그의 작업들은 관람객과 우주 사이의 거리를 무너뜨리고 있다.

그는 "우주나 달과 빙하처럼 친숙한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나 멀리 있어서, 너무나 거대해서 직접적으로 접하기 어려운 대상들을 쉽게 상상하고 만져볼 수 있는 규모로 압축해내는 것이 나의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케이트 패터슨은 2008년 볼보의 제1회 '크리에이티브 30어워드' 수상자로 뽑혔으며 최근 영국의 시사주간 <업저버>가 "영국 최고의 신인 아티스트" 네명 중 한명으로 선정했다. (02)734-9467. 정상영 기자

기사등록 : 2011-04-28 오후 07:45:45

© 한겨레 (<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vents Calendar

2011-04-15 18:37

Exhibitions

“Koo Bohnchang”: One of South Korea’s most renowned photographers, Koo Bohn-chang, is holding a solo exhibition at Kukje Gallery. Elements from his other series as well as his personal collections of eclectic objects are on display, giving the viewers a hint of Koo’s youth, attitudes toward photography and more. The exhibition runs through April 30 at Kukje Gallery in Sogyeok-dong, central Seoul. For more information, call (02) 735-8449 or visit www.kukjegallery.com.

“Katie Paterson”: PKM Gallery and Bartleby Bickle & Meursalt introduces Katie Paterson, one of the most acclaimed young artists to emerge from Britain in recent years. This is her first exhibition in Korea. It features several pieces of Paterson’s scientific artworks that ponder on space, time, light and sounds. The exhibition runs through May 6 at PKM Gallery and Bartleby Bickle & Meursalt in www.pkmgallery.com.



A scene from Katie Paterson’s video work “Langjokull, Snaefellsjokull, Solheimajokull” which is on display at PKM Gallery through May 6. (PKM Gallery)

“H Box 2011”: “H Box,” the 6.5 meter wide and 5 meter tall spaceship-like structure on the third floor of Artsonje Center in Sogyeok-dong, central Seoul, is a mini, portable screening room for video artworks, organized by the Hermes

Foundation. The project was started in 2006 and so far a total of 21 video works have toured around prestigious museums and art festivals of the world. Here, eight video works are currently on show, including four premiering works. "H Box 2011" runs through May 1. For more information, call (02) 733-8945 or visit www.artsonje.org.

"Paulo Robersi: Photographs": A retrospective exhibition on Italian photographer Paulo Robersi is underway at 10 CORSO COMO. Robersi is referred to as currently one of the three best fashion photographers in the world along with Steven Meisel and Peter Lindbergh. The exhibition runs through May 8 at 10 CORSO COMO SEOUL in Cheongdam-dong, southern Seoul. Admission is free. Minors are not allowed. For more information, call (02) 3018-1010.

"The Exhibition of the Great Portraitist's Work — KARSH": About 100 photographs by the great photographer Yousuf Karsh are on display at Sejong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Among its three sections — "Landscape," "Portraits," "Hands" — the "Portraits" division is notable. Visitors can meet many portrait photos of the famous people from the 20th century, including Audrey Hepburn, Christian Dior and Elizabeth Taylor. The exhibition runs through May 22 at Sejong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in central Seoul. Tickets range from 6,000 won to 9,000 won. For more information, call 1544-1681.

"Korean Rhapsody: A Montage of History and Memory": Korea's restless modern history unfolds at Leeum, Samsung Museum of Art in the form of paintings, photographs, installations and media works. The exhibition displays 80 historical documents and artworks that reflect crucial moments in Korea's painful but dynamic past. While staying within the theme, the exhibits are of very high quality, created by renowned local and foreign artists. The exhibition runs until June 5 at Leeum, Samsung Museum of Art in Hannam-dong, southern Seoul. Tickets range from 4,000 won to 7,000 won. For more information, call (02) 2014-6900 or visit www.leeum.org.

China diplomatic relations, 63 Sky Art Gallery presents 60 paintings and photographs by 16 of China's representative contemporary artists including Fang Lijun, Zeng Fanzhi, Yue Minjun, Ru Xiaofan and Zhang Xiaogang. The exhibition runs through July 3 at 63 Building's 63 Sky Art Gallery in Yeouido-dong, central Seoul. Tickets are 11,000 won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12,000 won for adults. For more information, call (02) 789-5663 or visit www.63.co.kr.

"Kim Chong-hak": The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is holding a large-scale retrospective exhibition to look back on the achievements of South Korean artist Kim Chong-hak who is known as the "painter of Mountain Seorak." The exhibition features 70 major paintings from his early works of the 1950s to more recent works. He painted beautiful landscapes of the country using glamorous colors and extravagant expressions. The exhibition runs through June 26 at the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in Gwacheon, Gyeonggi Province. For more information, call (02) 2188-6000 or visit www.moca.go.kr.

[2011-04-14 08:22]

[투데이갤러리]케이티 패터슨의 '바트나이외쿠틀의 소리'



바트나이외쿠틀의 소리(15x162.5x5cm 네온 사인, 텔레폰 로그북, 아이팟에 녹음기록, 포토그래프 2007)

[아시아투데이=전혜원 기자]영국현대미술계가 주목하는 차세대 아티스트 케이티 패터슨은 시적인 감수성과 과학적인 자료들을 바탕으로 개념미술을 추구하는 작가다.

개념미술이란 완성된 작품 자체보다 그 작품이 탄생되는 과정과 아이디어 자체를 예술이라고 보는 현대미술의 한 경향을 뜻한다.

패터슨은 빙하나 달 등의 '환경'을 주제로 작업을 풀어나간다. 아이슬란드 바트나빙하 지역의 남쪽 끝에 있는 빙하가 녹는 소리를 들려주는 그의 작업은 관람객으로 하여금 마치 빙하 곁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한다.

작가는 "우주나 달, 빙하처럼 친숙하지만 너무 멀리 있고 거대해 직접 접하기 어려운 대상들을 만져볼 수 있는 규모로 압축해내는 것이 내 작업"이라고 밝혔다.

PKM갤러리(02-734-9567)

전혜원 기자 hwjun@asiatoday.co.kr

2011 / 04 / 11

Katie Paterson, PKM 갤러리



Katie Paterson. **Vatnajökull (the sound of)**, 2007/8. Hydrophone, mobile phone, DE500, variable.

PKM Gallery | Bartleby Bickle & Meursault 는 최근 영국에서 가장 호평을 받고 있는 떠오르는 젊은 작가들 중 한 명인 케이티 패터슨 (Katie Paterson, b. 1981)의 신작과 근작들로 이루어진 개인전을 개최한다.

최근 런던 Observer지에 의해 “영국 최고의 신인 아티스트 (Best New Artists in Britain)” 네 명 중 한 명으로 선정된 케이티 패터슨은 2008년 옥스포드 현대미술관 (Modern Art Oxford)에서 열린 개인전에서 처음으로 대중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녀가 런던 슬레이드 파인 아트 스쿨 (Slade School of Fine Art, London)을 졸업한 지 일 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다.

그 전시에서 보여진 작품 **Vatnajökull (the sound of)**는 아이슬란드 빙하에 묻어놓은 마이크로폰을 오디오 장치와 모바일폰 선에 연결시켜 발신자가 세계 어느 곳에 있든 실시간으로 그 빙하의 느리게 녹아가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작품은 개념적인 면에서 매우 충실하면서 동시에 시적인 인상을 주는 또 다른 작품, **Earth-Moon-Earth (Moonlight Sonata Reflected from the Surface of the Moon)**과 함께 전시되었다. 패터슨은 베토벤의 익숙한 악보를 모르스 부호로 바꾼 뒤 라디오 웨이브 방식으로 그 부호

들이 달에 부딪혀 반사되도록 한다. 이렇게 임의적이지만 섬세하고 잊혀지지 않는 방법을 통해 분화구로 덮힌 달 표면에 의해 분해되어서 돌아오는 신호들을 얻게 된다. 달 자체에 의해 변경되고 재구성되어진 월광 소나타인 셈이다.

두 작품 모두 갤러리 공간에 맞게 작가의 조정을 거쳐 이번 전시에 포함되었다. 다른 작품들 역시 패터슨의 대표작으로서 리서치를 바탕으로 한, 시적이면서도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방식으로 자연, 환경, 우주에 대한 생각과 관련된 여러 전문분야의 실행들이 바탕이 된 대표작들이다. 재현에 있어 감정을 많이 드러내지 않으며 표현을 아끼는 것과는 달리 그녀의 작품은 다양한 기술 전문가들과 오랜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협력한 결과물이다.

예를 들어, Light Bulb to Simulate Moonlight는 달빛과 동일한 파장을 가진 전구를 만들기 위해 오스람(OSRAM)과 협력하여 개발한 백열 전구 한 세트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History of Darkness는 우주 전체의 각기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포착된 어두움에 대한 십여년에 걸친 슬라이드 아카이브이다. 이것은 천문대에서 모은 이미지와 정보를 따라 일생을 걸쳐 계속해서 진행될 장기 프로젝트이다. 다른 작업들에서와 마찬가지로 The Dying Star Letters를 작업하면서도 패터슨은 천문학자들과 우주학자들이 보내오는 감마광선 파열, 별의 죽음을 알리는 현상에 대한 기술적인 통지들을 참고하였다. 패터슨은 그 통지들을 받은 뒤에 별의 죽음을 발표하는 간단한 친필편지를 붙인다. 관람객과 먼 우주 끝 사이의 거리를 무너뜨리는, 그녀의 다른 작업들이 그러하듯이, 절제되어 있지만 친밀한 표현이다.

기간: 2011. 3. 24 ~ 5. 11

장소: PKM 갤러리



Katie Paterson. **History of Darkness**, 2010. Ongoing slide archive.



PKM Gallery 케이티 패터슨

기사입력: 2011/04/01 04:37



Katie Paterson. Inside this desert lies the tiniest grain of sand, 2010. Silver gelatin photograph, 120 x 80 cm.

PKM Gallery | Bartleby Bickle & Meursault Organized by JAMES B. LEE

PKM Gallery | Bartleby Bickle & Meursault 는 최근 영국에서 가장 호평을 받고 있는 떠오르는 젊은 작가들 중 한 명인 케이티 패터슨 (Katie Paterson, b. 1981)의 신작과 근작들로 이루어진 개인전을 개최한다.

최근 런던 Observer지에 의해 “영국 최고의 신인 아티스트 (Best New Artists in Britain)” 네 명 중 한 명으로 선정된 케이티 패터슨은 2008년 옥스포드 현대미술관 (Modern Art Oxford)에서 열린 개인전에서 처음으로 대중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녀가 런던 슬레이드 파인 아트 스쿨 (Slade School of Fine Art, London)을 졸업한 지 일 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다. 그 전시에서 보여진 작품 *Vatnajökull (the sound of)*는 아이슬란드 빙하에 묻어놓은 마이크를 오디오 장치와 모바일폰 선에 연결시켜 발신자가 세계 어느 곳에 있든 실시간으로 그 빙하의 느리게 녹아가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였다.

“Katie Paterson at PKM Gallery.” *The Move* 1 April 2011, Seoul.



이 작품은 개념적인 면에서 매우 충실하면서 동시에 시적인 인상을 주는 또 다른 작품, *Earth-Moon-Earth (Moonlight Sonata Reflected from the Surface of the Moon)* 과 함께 전시되었다. 패터슨은 베토벤의 익숙한 악보를 모르스 부호로 바꾼 뒤 라디오 웨이브 방식으로 그 부호들이 달에 부딪혀 반사되도록 한다.

이렇게 임의적이지만 섬세하고 잊혀지지 않는 방법을 통해 분화구로 덮힌 달 표면에 의해 분해되어서 돌아오는 신호들을 얻게 된다. 달 자체에 의해 변경되고 재구성되어진 월광 소나타인 셈이다. 두 작품 모두 갤러리 공간에 맞게 작가의 조정을 거쳐 이번 전시에 포함되었다.

다른 작품들 역시 패터슨의 대표작으로서 리서치를 바탕으로 한, 시적이면서도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방식으로 자연, 환경, 우주에 대한 생각과 관련된 여러 전문분야의 실험들이 바탕이 된 대표작들이다.

재현에 있어 감정을 많이 드러내지 않으며 표현을 아끼는 것과는 달리 그녀의 작품은 다양한 기술 전문가들과 오랜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협력한 결과물이다.

예를 들어, *Light Bulb to Simulate Moonlight* 는 달빛과 동일한 파장을 가진 전구를 만들기 위해 오스람(OSRAM)과 협력하여 개발한 백열 전구 한 세트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History of Darkness* 는 우주 전체의 각기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포착된 어둠에 대한 십여년에 걸친 슬라이드 아카이브이다.

이것은 천문대에서 모은 이미지와 정보를 따라 일생을 걸쳐 계속해서 진행될 장기 프로젝트이다.

다른 작업들에서와 마찬가지로 *The Dying Star Letters* 를 작업하면서도 패터슨은 천문학자들과 우주학자들이 보내오는 감마광선 파열, 별의 죽음을 알리는 현상에 대한 기술적인 통지들을 참고하였다. 패터슨은 그 통지들을 받은 뒤에 별의 죽음을 발표하는 간단한 친필편지를 붙인다.

관람객과 먼 우주 끝 사이의 거리를 무너뜨리는, 그녀의 다른 작업들이 그러하듯이, 절제되어 있지만 친밀한 표현이다. 글래스고 (Glasgow)에서 1981년에 태어난 케이티 패터슨은 2004년 에든버러 컬리지 오브 아트 (Edinburgh College of Art)에서 학사학위, 그리고 2007년 런던 슬레이드 파인 아트 스쿨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녀는 뉴욕 제임스 코헨 갤러리 (James Cohan Gallery, 2011), 옥스포드 현대미술관 (Modern Art Oxford, 2008), 런던 알비온 갤러리 (Albion Gallery, 2008), 런던 매튜 본 갤러리 (Matthew Bown Gallery, 2007)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또한 비엔나 쿤스트할레 (Kunsthalle Wien, Vienna)의 <스페이스. 꿈에 관하여> (Space. About a Dream, 2011), 영국 게이츠헤드 발틱 컨템포러리 아트센터 (BALTIC Centre for Contemporary Art, Gateshead, UK)의 <케이지 믹스: 조각 & 소리> (Cage Mix: Sculpture & Sound, 2010), 스톡홀름 보니에 콘스탈 (Bonniers Konsthall)의 <라이프 폼> (Lifeforms, 2009), 뉴욕 <퍼포마09> (Performa, 2009), 토론토 파워 플랜트 현대미술센터 (The Power Plant)의 <유니버설 코드> (Universal Code, 2009), 런던 테이트 트리엔날레 미술관 <얼터모던: 테이트 트리엔날레> (Altermodern: Tate Triennial, 2009)와 같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그룹전에 선정되었다.

케이티 패터슨은 에든버러 칼리지 오브 아트 (Edinburgh College of Art)의 존 플로런트 스톤 펠로우(John Florent Stone Fellow)이며, 런던대학교 (University College London) 천체물리학 그룹의 레지던스 작가이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분야들, 아트를 포함한 디자인, 패션, 음악 등의 분야에서 영국의 재능있는 젊은 작가를 뽑기 위해 볼보 (Volvo)에서 매년 주최하는 크리에이티브 30 어워드 (Creative 30 Award)의 2008년 1회 수상자이다. 케이티 패터슨은 현재 독일 베를린에 거주하며 작업 중이다.





URBAN
LIFESTYLE
MAGAZINE

엘라서울
ELLE à Seoul

APRIL 2011
No.38

ABOUT A TOWN

청담동, 제2의 전성기를 맞다

SEOULIAN

나무를 사랑한 9인의 가구 디자이너

PHOTOGRAPH

지하철에서 포착한 도쿄의 얼굴들

NEW ART SPACE 4

정형화된 갤러리가 아닌
새로운 컨셉트의 아트 스페이스

PORTFOLIO

에르메스의 스카프는 하나의 작품이다

OH, CHEF

MY CHEF

101가지 맛과 101가지 감정을 경험하게 해준, 내 인생의 셰프들

정가 3,000원
HEM KOREA





케이티 패터슨

시적인 감수성과 과학적인 자료를 토대로 새로운 상상력을 추구하는 케이티는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영국 출신의 젊은 작가다. 모스 부호로 전환한 베토벤의 월광소나타를 달의 표면으로 송신한 뒤, 다시 반사되어 지구로 돌아온 시그널을 악보화하여 자동피아노로 연주한 작품 'Earth-Moon-Earth'로 주목을 받았다. 이전 전시에 소개된 'Langjökull', 'Snæfellsjökull', 'Solheimajökull'에서는 아이슬란드에 있는 세 개의 빙하에서 소리를 녹음하고, 그 빙하들이 녹은 물로 일회성 레코드판을 만들어 턴테이블로 재생한다. 이 얼음 레코드판이 녹는 데 약 2시간이 걸리는 걸 영상으로 담았다. 모든 작업이 개성이 넘친다. PKM갤러리.

DATE 3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TEL** 734-9467

제목 케이티 피터슨

기간 2011-03-24~2011-05-6

장소 PKM갤러리

모스부호가 된 음악과 빙하 레코드판

영국 현대미술가 케이티 피터슨(Katie Paterson)의 개인전이 열린다. 시적인 감수성과 인과학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상상력을 자극하는 개념미술 작업을 선보이는 그의 대표작이 소개된다. 모스부호로 전환된 베토벤의 월광소나타를 달에 보내거나 빙하로 만든 레코드판을 턴테이블에 놓고 녹을때까지 트는 등 사진을 비롯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감성적이고 파격적인 개념미술을 선보인다 (02-734-9467)



New talents: Katie Paterson



Recently named by the “Observer” of London as one of four “Best New Artists in Britain”, Katie Paterson (b.1981) first came to public attention with a solo show at Modern Art Oxford in 2008, just a year after graduating from the Slade School of Fine Art, London.

That show featured “Vatnajökull (the sound of)”, which connected a microphone embedded in an Icelandic glacier to audio equipment and a mobile phone line, allowing callers from anywhere in the world to listen in real time to the slow melting of the glacier. It was shown with another work that was equally cogent in its conceptual basis yet deeply poetic in effect, “Earth-Moon-Earth (Moonlight Sonata Reflected from the Surface of the Moon)”. Taking Beethoven’s familiar notes and transcribing them into Morse codes that were sent via radio waves to bounce off the moon, Paterson ended up with returning signals that were degraded by the cratered lunar surface in random yet subtly haunting ways—a Moonlight Sonata altered and reconstituted by the moon itself.

Both works are included in the present exhibition, adapted by the artist to our gallery setting. Other works in the show are also representative of Paterson’s research-based, multidisciplinary practice, which engages with ideas of nature, environment, and the cosmos in ways that are at once poetic, scientific, and philosophical. Though coolly minimalist and understated in their presentation, her works are often the result of long, intensive research and collaboration with specialists in various technological expertise.

Source: PKM Gallery

City: Seúl
Country: Corea

P K M GALLERY

Katie Paterson



Katie Paterson

© Courtesy of the artist & PKM Gallery

PKM Gallery | Bartleby Bickle & Meursault 는 2011년 3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영국현대미술계가 가장 주목하는 차세대 영 아티스트 케이트 페터슨 (Katie Paterson, b. 1981)의 개인전을 개최한다. 시적인 감수성과 과학적인 자료들을 바탕으로 상상력을 자극하는 개념작업을 추구하는 케이트는 최근 몇 년간 언론과 미술계가 주목하는 젊은 작가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대표작 *Earth-Moom-Earth* (2007) - 모스 부호로 전환 된 베토벤의 월광소나타를 달의 표면으로 송신 한 뒤 다시 반사되어 지구로 돌아온 시그널을 악보화하여 자동 피아노로 연주한 작품 - 을 통해 그녀는 단숨에 평단의 주목을 받게 된다.

케이트는 영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일간지 가디언 (Guardian)지에서 2010 영국 최고의 신인 아티스트 (Best New Artist in Britain)로 소개된 바 있으며, 글로벌 자동차 기업 볼보(Volvo)가 재정한 Creative 30 의 2007년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Creative 30은 모든 예술분야 - 미술, 음악, 무용, 연극, 문학 등 - 에서 현재 활동하는 30세 이하의 전도유명한 아티스트 단 '한 명'에게 수여되는 예술상이다.

비평가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은 2008년 옥스포드 현대미술관(Modern Art Oxford) 개인전에 이어 2009년 런던 테이트 브리튼 미술관 (Tate Britain)의 테이트 트리엔날레 (Tate Triennial)에 참여하였으며 2011년 뉴욕 제임스 코헨 (James Cohan) 갤러리에서의 개인전을 가졌다. PKM 갤러리와 바틀비 비클 & 피르소에서 개최되는 케이트 페터슨의 전시는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열리는 그녀의 첫 번째 개인전이다.



Katie Paterson

by PKM Gallery

Location: PKM Gallery

Artist(s): Katie PATERSON

Date: 24 Mar - 6 May 2011

PKM Gallery, Bartleby Bickle & Meursault are pleased to present a solo exhibition of new and recent work by Katie Paterson (b. 1981), one of the most acclaimed young artists to emerge from Britain in recent years. This is the artist's first exhibition in Asia.

Recently named by the Observer of London as one of four "Best New Artists in Britain," Katie Paterson first came to public attention with a solo show at Modern Art Oxford in 2008, just a year after graduating from the Slade School of Fine Art, London.

That show featured *Vatnajökull* (the sound of), which connected a microphone embedded in an Icelandic glacier to audio equipment and a mobile phone line, allowing callers from anywhere in the world to listen in real time to the slow melting of the glacier. It was shown with another work that was equally cogent in its conceptual basis yet deeply poetic in effect, *Earth-Moon-Earth* (*Moonlight Sonata Reflected from the Surface of the Moon*). Taking Beethoven's familiar notes and transcribing them into Morse codes that were sent via radio waves to bounce off the moon, Paterson ended up with returning signals that were degraded by the cratered lunar surface in random yet subtly haunting ways—a *Moonlight Sonata* altered and reconstituted by the moon itself.

Both works are included in the present exhibition, adapted by the artist to our gallery setting. Other works in the show are also representative of Paterson's research-based, multidisciplinary practice, which engages with ideas of nature, environment, and the cosmos in ways that are at once poetic, scientific, and philosophical. Though coolly minimalist and understated in their presentation, her works are often the result of long, intensive research and collaboration with specialists in various technological expertise.

Light Bulb to Simulate Moonlight, for instance, is a set of incandescent bulbs developed in cooperation with OSRAM to transmit light with wavelengths identical to those of moonlight. And *History of Darkness* is a slide archive of darkness, spanning billions of years, captured at different times and places throughout the universe—an ongoing life-long project that compiles images and information gathered by astronomical observatories. Similarly, in making *The Dying Star Letters*, Paterson relies on technical notifications of gamma-ray bursts, indicative of stellar deaths, sent out by astronomers and cosmologists. Upon receiving such notification, Paterson hand-writes and posts a brief letter announcing the star's death—a characteristically spare yet intimate gesture which collapses the distance between her audience and the most distant edges of the cosmos.

Born in 1981 in Glasgow, Katie Paterson received her BA from Edinburgh College of Art in 2004 and her MFA from the Slade School of Fine Art, London, in 2007. She has exhibited in solo shows at James Cohan Gallery, New York (2011); Modern Art Oxford, Oxford (2008); Albion Gallery, London (2008); and Matthew Bown Gallery, London (2007). She has also been selected for inclusion in important international group shows such as "Space. About a Dream," Kunsthalle Wien, Vienna (2011); "Cage Mix: Sculpture & Sound," Konsthall, Stockholm (2009); Performa 09, New York (2009); "Universal Code," The Power Plant, Toronto (2009); and "Altermodern: Tate Triennial," Tate Britain, London (2009).

Katie Paterson holds a John Florent Stone Fellowship at Edinburgh College of Art and is the Leverhulme Artist in Residence in the Astrophysics Group at the University College London. In 2008, she was awarded the first annual Creative 30 Award, created by Volvo to recognize Britain's brightest young talent across various creative fields, including art, design, fashion, and music. Katie Paterson currently lives and works in Berlin, Germany.

Opening Reception | 6:00 PM, Thursday | March 24, 2011



케이티 패터슨 개인전

공연홈 > 미술/쇼/전시 > 전시

요약정보 공연시간

공연기간 2011.03.24(목) ~ 2011.05.06(금)

공연장소 PKM 갤러리

작품설명

PKM Gallery | Bartleby Bickle & Meursault 는 최근 영국에서 가장 호평을 받고 있는 떠오르는 젊은 작가들 중 한 명인 케이티 패터슨 (Katie Paterson, b. 1981)의 신작과 근작들로 이루어진 개인전을 개최한다.

최근 런던 Observer지에 의해 “영국 최고의 신인 아티스트 (Best New Artists in Britain)” 네 명 중 한 명으로 선정된 케이티 패터슨은 2008년 옥스포드 현대미술관 (Modern Art Oxford)에서 열린 개인전에서 처음으로 대중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녀가 런던 슬레이드 파인 아트 스쿨 (Slade School of Fine Art, London)을 졸업한 지 일 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다.

그 전시에서 보여진 작품 Vatnajökull (the sound of)는 아이슬란드 빙하에 묻어놓은 마이크로폰을 오디오 장치와 모바일폰 선에 연결시켜 발신자가 세계 어느 곳에 있던 실시간으로 그 빙하의 느리게 녹아가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작품은 개념적인 면에서 매우 충실하면서 동시에 시적인 인상을 주는 또 다른 작품, Earth-Moon-Earth (Moonlight Sonata Reflected from the Surface of the Moon)과 함께 전시되었다. 패터슨은 베토벤의 익숙한 악보를 모르스 부호로 바꾼 뒤 라디오 웨이브 방식으로 그 부호들이 달에 부딪혀 반사되도록 한다. 이렇게 임의적이지만 섬세하고 잊혀지지 않는 방법을 통해 분화구로 덮힌 달 표면에 의해 분해되어서 돌아오는 신호들을 얻게 된다. 달 자체에 의해 변경되고 재구성되어진 월광 소나타인 셈이다.

두 작품 모두 갤러리 공간에 맞게 작가의 조정을 거쳐 이번 전시에 포함되었다. 다른 작품들 역시 패터슨의 대표작으로서 리서치를 바탕으로 한, 시적이면서도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방식으로 자연, 환경, 우주에 대한 생각과 관련된 여러 전문분야의 실험들이 바탕이 된 대표작들이다. 재현에 있어 감정을 많이 드러내지 않으며 표현을 아끼는 것과는 달리 그녀의 작품은 다양한 기술 전문가들과 오랜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협력한 결과물이다.

예를 들어, Light Bulb to Simulate Moonlight는 달빛과 동일한 파장을 가진 전구를 만들기 위해 오스람(OSRAM)과 협력하여 개발한 백열 전구 한 세트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History of Darkness는 우주 전체의 각기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포착된 어두움에 대한 십여년에 걸친 슬라이드 아카이브이다. 이것은 천문대에서 모은 이미지와 정보를 따라 일생을 걸쳐 계속해서 진행될 장기 프로젝트이다. 다른 작업들에서와 마찬가지로 The Dying Star Letters를 작업하면서도 패터슨은 천문학자들과 우주학자들이 보내오는 감마광선 파열, 별의 죽음을 알리는 현상에 대한 기술적인 통지들을 참고하였다. 패터슨은 그 통지들을 받은 뒤에 별의 죽음을 발표하는 간단한 친필편지를 붙인다. 관객과 먼 우주 끝 사이의 거리를 무너뜨리는, 그녀의 다른 작업들이 그러하듯이, 절제되어 있지만 친밀한 표현이다.

글래스고 (Glasgow)에서 1981년에 태어난 케이티 패터슨은 2004년 에든버러 컬리지 오브 아트 (Edinburgh College of Art)에서 학사학위, 그리고 2007년 런던 슬레이드 파인 아트 스쿨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녀는 뉴욕 제임스 코헨 갤러리 (James Cohan Gallery, 2011), 옥스포드 현대미술관 (Modern Art Oxford, 2008), 런던 알비온 갤러리 (Albion Gallery, 2008), 런던 매튜 본 갤러리 (Matthew Bown Gallery, 2007)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또한 비엔나 쿤스트할레 (Kunsthalle Wien, Vienna)의 <스페이스. 꿈에 관하여> (Space. About a Dream, 2011), 영국 게이츠헤드 발틱 컨템포러리 아트센터 (BALTIC Centre for Contemporary Art, Gateshead, UK)의 <케이지 믹스: 조각 & 소리> (Cage Mix: Sculpture & Sound, 2010), 스톡홀름 보니에 콘스탈 (Bonniers Konsthall)의 <라이프 폼> (Lifeforms, 2009), 뉴욕 <퍼포마09> (Performa, 2009), 토론토 파워 플랜트 현대미술센터 (The Power Plant)의 <유니버설 코드> (Universal Code, 2009), 런던 테이트 트리엔날레 미술관 <알터모던: 테이트 트리엔날레> (Altermodern: Tate Triennial, 2009)와 같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그룹전에 선정되었다.

케이티 패터슨은 에든버러 컬리지 오브 아트 (Edinburgh College of Art)의 존 플로렌트 스톤 펠로우 (John Florent Stone Fellow)이며, 런던대학교 (University College London) 천체물리학 그룹의 레지던스 작가이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분야들, 아트를 포함한 디자인, 패션, 음악 등의 분야에서 영국의 재능있는 젊은 작가를 뽑기 위해 볼보 (Volvo)에서 매년 주최하는 크리에이티브 30 어워드 (Creative 30 Award)의 2008년 1회 수상자이다. 케이티 패터슨은 현재 독일 베를린에 거주하며 작업 중이다.

과학기술로 본 자연과 우주, '케이티 피터슨' 서울展

| 기사입력 2011-03-31 09:21



케이티 피터슨의 영상작품

영국에서 가장 호평 받고 있는 젊은 작가들 중 한 명인 케이티 피터슨의 개인전이 국내에서 열린다.

런던 'Observer'지에 '영국 최고의 신인 아티스트' 네 명 중 한 명으로 선정되기도 한 그녀는 2008년 옥스퍼드 현대미술관에서 열린 개인전을 시작으로 대중의 관심을 받았다.

그녀는 자연과 우주에 대한 관심을 과학기술과 접목하여 실제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했다. 그 결과 공간과 시간의 거리를 무너뜨리는 개념적이면서도 시적인 작품들을 완성했다.

이번 전시는 그녀의 신작과 근작들로, 이미 2008년 개인전에서도 전시되어 호평을 받은 바 있는 두 작품들도 갤러리 공간에 맞도록 재구성되어 선보인다.

아이슬란드 빙하에 묻은 마이크를 오디오 장치와 휴대전화에 연결시켜 실시간으로 빙하가 천천히 녹아드는 소리를 듣게 하는 ‘Vatnajokull’, 베토벤의 악보를 모스부호로 바꾼 뒤 달에 송출했다 되돌아오는 신호를 악보로 재구성해 들려주는 ‘Earth-.Moon-.Earth’를 국내에서도 선보인다.

또한 별의 죽음을 관찰하는 천문학자들의 통지를 받으면 이 소식을 간단한 친필 편지에 담아 보내는 장기 프로젝트, 빙하의 물을 얼려 레코드판을 만들어 재생하면서 빙하 흐르는 소리를 들려준 영상작품 등 그녀의 시적 상상력을 엿볼 수 있는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5월 6일까지, 문의 02-734-9467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최민지 기자 (cmj@kmomnews.com)

英 케이티 피터슨 서울展… 과학을 빌려 그려낸 시적인 자연과 우주



영국 작가 케이티 피터슨의 영상작품.

영국에서 주목받는 신진작가 케이티 피터슨 씨(29)의 개인전이 서울 종로구 화동 PKM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다. 영국의 '옵서버'지가 영국 최고의 신인 아티스트 4명 중 한 명으로 선정한 작가다.

전시에선 자연과 우주에 대한 관심을 과학기술과 접목한 참신한 발상과, 이를 실제 작품으로 구현해낸 역량이 돋보인다. 아이슬란드 빙하에 묻은 마이크를 오디오 장치와 휴대전화에 연결시켜 실시간으로 빙하가 천천히 녹아드는 소리를 듣게 하거나, 달빛과 동일한 파장을 가진 백열전구를 이용한 설치작품,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 악보를 모스부호로 바꾼 뒤 달에 송출했다 되돌아오는 신호를 악보로 재구성해 들려주는 연주 등이 눈길을 끈다.

이 밖에도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하고 연구한 결과물을 볼 수 있다. 별의 죽음을 관찰하는 천문학자들의 통지를 받으면 이 소식을 간단한 친필편지에 담아 보내는 장기 프로젝트, 빙하의 물을 얼려 레코드판을 만들어 재생하면서 빙하 흐르는 소리를 들려준 영상작품 등은 공간과 시간의 거리를 무너뜨린다. 개념적 작업이지만 시적인 상상력이 스며 있어 차갑게 느껴지지 않는다. 5월 6일까지. 02-734-9467

고미석기자 mskoh119@donga.com

달이 연주하는 아름다운 월광 소나타

빙하가 녹는 소리 등 자연 소재로 한 개념미술 선보이는 케이티 패터슨



▲ pkm갤러리 전시장 1층 전경. 아이슬란드 빙하의 물 녹는 소리를 들려주기 위해 무선전파를 활용한 작품과, 별이 소멸될 때 보냈던 편지들이 전시되고 있다. 전시장 구석에서는 달에서 반사돼온 전파를 컴퓨터 자동 연주 버전으로 틀어놓은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를 틀어놓고 있다.

개념미술, 완성된 작품 자체보다 그 작품이 탄생되는 과정과 아이디어 자체를 예술이라고 보는 현대미술의 한 경향이다.

개념미술은 작가가 무엇을 의도했는지 관객이 스스로 생각해 보는 데 감상의 중점을 두지만 대부분의 관객이 보이는 반응은 '어렵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개념미술가 베르나르 브네(70)는 수학 공식을 그림에 도입한 작품을 선보였다. 관객들은 아리송해진다. 과연 이것이 뭘까?

이렇게 개념미술은 어렵다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것이 사실이지만 대중들에게 익숙한 소재를 이용해 개념미술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려는 작가가 있다.

최근 런던 옵서버(Observer)지에 '영국 최고의 신인 아티스트' 네 명 중 한 명으로 선정된 케이티 패터슨이 서울 화동 PKM갤러리에서 3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전시를 연다.

작가는 밤하늘에 떠있는 달과 빙하 같이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환경'을 주제로 작업을 풀어나간다.

특히 모스 부호로 전환한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 악보를 라디오 송신기 시스템으로 달에다 쓰고, 달에 부딪혀 반사돼 온 음향을 두 가지 방식으로 복원한 작품은 달이 작업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복원된 작품 중 하나는 모스 부호 그 자체, 다른 하나는 이 부호를 컴퓨터 자동 연주로 재생시킨 피아노 버전이다.

컴퓨터 자동 연주 버전은 전시장 1층, 모스 부호 버전은 전시장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들을 수 있다. 컴퓨터 자동 연주 버전은 언뜻 들으면 월광 소나타 원곡을 틀어놓은 것 같다.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연주 도중 끊기는 부분이 들리는 등 달에 반사된 전파가 지구로 돌아올 때 소실된 부분을 느낄 수 있다.



▲ 바트나이외쿠틀의 소리, 네온 사인, 텔레폰 로그북, 아이팟에 녹음기록, 포토그래프, 15x162.5x5cm, 2007

밤하늘 멀리 바라만 봤던 달빛도 전시장 안에서 가까이 바라볼 수 있다. 작가는 전구회사 오스람과 협업을 통해 완성된 ‘라이트 벌브 투 시뮬레이트 문라이트(Light Bulb to Simulate Moonlight, 2008)’를 선보인다.

이는 달빛을 모방한 일종의 달빛전구로, 전시장 1층에 마련된 어두운 방에 마련된다. 달빛과 닮은 은은한 빛을 담은 전구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별의 생성과 소멸에 관한 작가의 꾸준한 관심이 담긴 작품도 전시장 1층에서 감상할 수 있다. 작가는 감마선 폭발 감지 시스템을 이용해 별이 사라질 때마다 자신의 이메일로 통보를 받는다.

메일을 받은 즉시 작가는 별의 죽음을 전하는 친필편지를 컬렉터에게 보낸다. 편지만 봤을 때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별’이라는 익숙한 소재로 인해 관객들은 작품을 감상하는 데 보다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아이슬란드 바트나빙하 지역의 남쪽 끝에 있는 빙하가 녹는 소리도 전시장에서 들어볼 수 있다. 작가는 빙하호의 물을 얼려 얼음으로 만들어진 레코드를 만들었다. 이 레코드가 돌아갈 때 빙하가 녹는 소리를 녹음한 것을 틀어놓는다. 지구 저 편 먼 곳에 있는 빙하가 바로 곁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 아이슬란드에 위치한 3개이 빙하 량요쿨, 스네펠스요쿨, 솔헤이마요쿨, 디지털 필름, 1시간 75분, 2007

런던 슬레이드 파인 아트 스쿨에서 실용성보다는 미의 추구 혹은 개념 표현을 목적으로 하는 파인 아트를 전공한 작가는 자연과학에 대한 지식이 그리 많지는 않다. 오히려 모르는 것들이 많다.

하지만 별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과 인간을 구성하고 물질이 같다는 점을 발견하고, 이에 자연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밀접한 관계에 대해 큰 관심을 갖게 됐다. 그리고 인간과 자연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고리로 과학기술을 이용했다. 과학기술을 이용할 때 잘 모르는 부분은 전문가를 찾아가 물어보는 등 도움을 받기도 한다고.

그녀는 “우주나 달과 빙하처럼 친숙한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나 멀리 있어서, 너무나 거대해서 직접적으로 접하기 어려운 대상들을 쉽게 상상하고 만져볼 수 있는 규모로 압축해내는 것이 나의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 제주도를 방문할 예정”이라며, “제주도에 가서 자연 환경을 접하고 그곳에서 작업에 대한 영감을 받을 수 있을지 기대된다. 한라산에도 올라가 볼 것이다”라고 다음 작업에 대한 열의를 내비쳤다.

한편 영국 글래스고에서 1981년 태어난 작가는 뉴욕 제임스 코헨 갤러리, 옥스퍼드 현대미술관, 런던 알비온 갤러리, 런던 매튜 본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가진 바 있다. 또한 영국의 재능있는 젊은 작가를 뽑기 위해 볼보에서 매년 주최하는 크리에이티브 30 어워드에서 2008년 1회 수상자로 뽑히기도 했다.



▲ 케이티 패터슨 작가. (사진=장해순 기자)

PKM갤러리

전시명 : 케이티 패터슨 개인전

기간 : 3월 24일~5월 6일



나와 우주 끝 그 거리 허물기. 케이티 패터슨

Posted on March 28, 2011 by desk



KATIE PATERSON / P K M GALLERY | BARTLEBY BICKLE & MEURSAULT
2011.3.24-2011.5.6
<http://www.pkmgallery.com/>

PKM Gallery | Bartleby Bickle & Meursault 는 최근 영국에서 가장 호평을 받고 있는, 떠오르는 젊은 작가들 중 한 명인 케이티 패터슨 (Katie Paterson, b. 1981)의 신작과 근작들로 이루어진 개인전을 개최한다. 최근 런던 *Observer*지에 의해 '영국 최고의 신인 아티스트 (Best New Artists in Britain)' 네 명 중 한 명으로 선정된 케이티 패터슨은 2008년 옥스포드 현대미술관 (Modern Art Oxford)에서 열린 개인전에서 처음으로 대중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녀가 런던 슬레이드 파인 아트 스쿨 (Slade School of Fine Art, London)을 졸업한 지 일 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다.

과학과 철학을 담은 시적인 작품

2008년 전시 작품이기도 했던 *Vatnajökull (the sound of)*는 아이슬란드 빙하에 묻어놓은 마이크를 오디오 장치와 모바일폰 선에 연결시켜 발신자가 세계 어느 곳에 있는 실시간으로 그 빙하의 느리게 녹아가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작품은 개념적인 면에서 매우 충실하면서 동시에 시적인 인상을 주는 또 다른 작품, *Earth-Moon-Earth (Moonlight Sonata Reflected from the Surface of the Moon)*과 함께 전시되었다. *Earth-Moon-*

“Katie Paterson: Breaking down the distance between self and the edge of space.”
Magazyn.co.kr 28 March 2011, Seoul.



*Earth*에서 패터슨은, 베토벤의 익숙한 악보를 모르스 부호로 바꾼 뒤 라디오 웨이브 방식으로 그 부호들이 달에 부딪혀 반사되도록 했다. 이렇게 임의적이지만 섬세하고 잊혀지지 않는 방법으로 작가는 분화구로 덮힌 달 표면에 의해 분해되어서 돌아오는 신호들을 얻게 된다. 달 자체에 의해 변경되고 재구성되어진 월광 소나타인 셈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두 작품 모두를 갤러리 공간에 맞게 작가의 조정을 거쳐 선보인다. 다른 작품들 역시 패터슨의 대표작으로, 리서치를 바탕으로 한 시적이면서도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방식으로 자연, 환경, 우주에 대한 생각과 관련된 여러 전문분야의 실행들이 바탕이 된 대표작들이다. 재현에 있어 감정을 많이 드러내지 않으며 표현을 아끼는 것과는 달리 그녀의 작품은 다양한 기술 전문가들과 오랜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협력한 결과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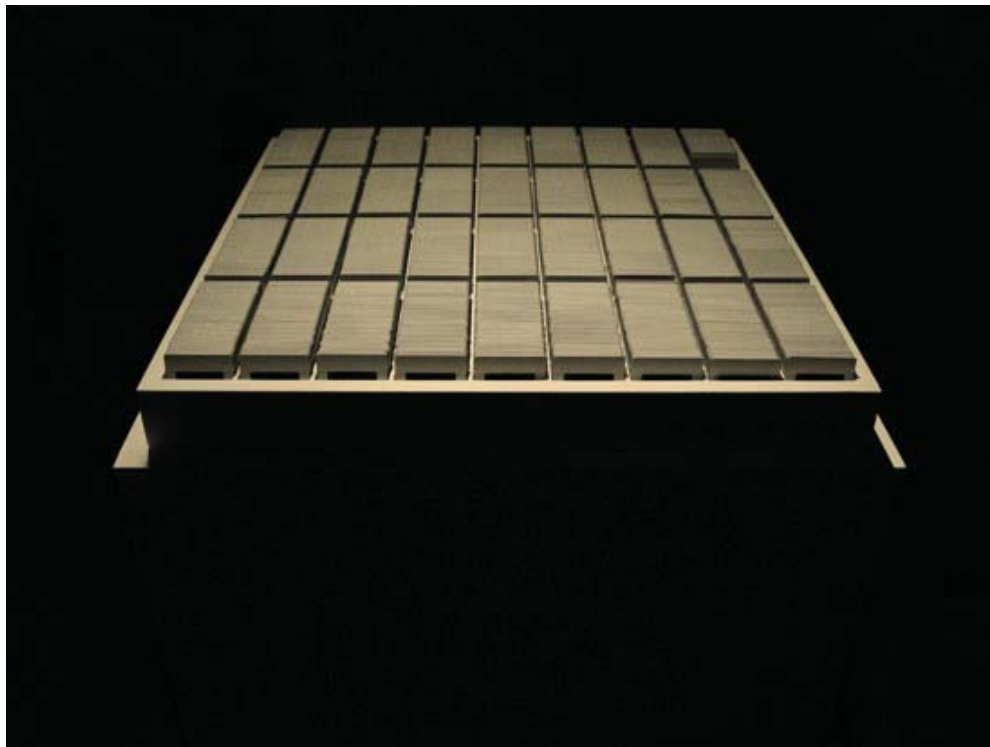
Vatnajokull (the sound of), 2007

십억 년의 슬라이드 아카이브

*Light Bulb to Simulate Moonlight*는 달빛과 동일한 파장을 가진 전구를 만들기 위해 오스람(OSRAM)과 협력하여 개발한 백열 전구 한 세트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History of Darkness*는 천문대에서 모은 우주 전체의 각기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포착된 어둠에 대한 십억 년에 걸친 슬라이드 아카이브이다. 본 작품은 제목 그대로 어둠의 역사를 기록하는 작업으로 작가의 평생에 걸친 현재진행형이자 장기 프로젝트이다. 광년에 따라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수집되는 끝없는 암흑 이미지들은 규격화된 슬라이드 안으로 옮겨진 뒤 보관된다. 다른 작업들에서와 마찬가지로 *The Dying Star Letters*를 작업하면서도 패터슨은 천문학자들과 우주학자들이 보내오는 감마광선 파열, 별의 죽음을 알리는 현상에 대한 기술적인 통지들을 참고하였다. 패터슨은 그 통지들을 받은 뒤에 별의 죽음을 발표하는 간단한 친필편지를 붙인다. 관람객과 먼 우주 끝 사이의 거리를 무너뜨리는, 그녀의 다른 작업들이 그러하듯이, 절제되어 있지만 친밀한 표현이다.



Langjokull, Snaefellsjokull, Solheimajokull, 2007



History of Darkness, 2010



As the World Turns, 2010

위의 작품은 지구의 자전 속도와 동일하게 회전하도록 고안된 턴테이블과 레코드로 구성되어 있다. 턴테이블 위 레코드는 24시간 동안 단 한 바퀴만을 돌게 되며, 육안으로는 확인이 어려울 만큼 느리게 돌아가는 레코드에서 재생되는 음악은 지구의 공전으로 생성되는 계절을 묘사한 비발디의 사계이다. 세상이 돌아가듯 레코드도 돌아가지만, 정작 비발디의 사계가 모두 재생되기까지는 4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Inside this desert lies the tiniest grain of sand, 2010



magazyn.co.kr

inquiry into art & design

패터슨은 사하라 사막에서 모래를 수집한 뒤 그 모래알들을 특수 나노 기술을 이용하여 0.00005mm 크기의 입자로 쪼갬다. 인류 문명의 첨단 기술에 의해 재탄생된 모래입자들은 작가에 의해 자연으로 되돌려지는데, 작가는 나노 사이즈 모래입자들을 처음 수집했던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 일반 모래들 사이에 섞은 뒤 깊이 묻어버린다.



Katie Paterson

Katie Paterson

글래스고 (Glasgow)에서 1981년에 태어난 케이티 패터슨은 2004년 에든버러 컬리지 오브 아트 (Edinburgh College of Art)에서 학사학위, 그리고 2007년 런던 슬레이드 파인 아트 스쿨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녀는 뉴욕 제임스 코헨 갤러리 (James Cohan Gallery, 2011), 옥스포드 현대미술관 (Modern Art Oxford, 2008), 런던 알비온 갤러리 (Albion Gallery, 2008), 런던 매튜 본 갤러리 (Matthew Bown Gallery, 2007)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또한 비엔나 쿤스트할레 (Kunsthalle Wien, Vienna)의 <스페이스. 꿈에 관하여> (Space. About a Dream, 2011), 영국 게이츠헤드 발틱 컨템포러리 아트센터 (BALTIC Centre for Contemporary Art, Gateshead, UK)의 <케이지 믹스: 조각 & 소리> (Cage Mix: Sculpture & Sound, 2010), 스톡홀름 보니에 콘스탈 (Bonniers Konsthall)의 <라이프 폼> (Lifeforms, 2009), 뉴욕 <퍼포마09> (Performa, 2009), 토론토 파워 플랜트 현대미술센터 (The Power Plant)의 <유니버설 코드> (Universal Code, 2009), 런던 테이트 브리튼 미술관 <알터모던: 테이트 트리엔날레> (Altermodern: Tate Triennial, 2009)와 같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그룹전에 선정되었다.

케이티 패터슨은 에든버러 컬리지 오브 아트 (Edinburgh College of Art)의 존 플로런트 스톤 펠로우 (John Florent Stone Fellow)이며, 런던대학교 (University College London) 천체물리학 그룹의 레지던스 작가이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분야들, 아트를 포함한 디자인, 패션, 음악 등의 분야에서 영국의 재능있는 젊은 작가를 뽑기 위해 볼보 (Volvo)에서 매년 주최하는 크리에이티브 30 어워드 (Creative 30 Award)의 2008년 1회 수상자이다. 케이티 패터슨은 현재 독일 베를린에 거주하며 작업 중이다.

<http://www.katiepaterson.org/>

“Katie Paterson: Breaking down the distance between self and the edge of space.”

Magazyn.co.kr 28 March 2011, Seoul.

Katie Paterson

at [PKM Gallery, Bartleby Bickle & Meursault](#)

Mar 24, 2011 - May 6, 2011



PKM Gallery | Bartleby Bickle & Meursault are pleased to present a solo exhibition of new and recent work by Katie Paterson (1981), one of the most acclaimed young artists to emerge from Britain in recent years. This is the artist's first exhibition in Asia.

Recently named by the Observer of London as one of four "Best New Artists in Britain," Katie Paterson first came to public attention with a solo show at Modern Art Oxford in 2008, just a year after graduating from the Slade School of Fine Art, London.

That show featured *Vatnajökull* (the sound of), which connected a microphone embedded in an Icelandic glacier to audio equipment and a mobile phone line, allowing callers from anywhere in the world to listen in real time to the slow melting of the glacier. It was shown with another work that was equally cogent in its conceptual basis yet deeply poetic in effect, *Earth-Moon-Earth* (Moon

were sent via radio waves to bounce off the moon, Paterson ended up with returning signals that were degraded by the cratered lunar surface in random yet subtly haunting ways—a *Moonlight Sonata* altered and reconstituted by the moon itself.

Both works are included in the present exhibition, adapted by the artist to our gallery setting. Other works in the show are *cosmos* in ways that are at once poetic, scientific, and philosophical. Though coolly minimalist and understated in their presentation, her works are often the result of long, intensive research and collaboration with specialists in various technological expertise.

Light Bulb to Simulate Moonlight, for instance, is a set of incandescent bulbs developed in cooperation with OSRAM to transmit with wavelengths identical to those of moonlight. And *History of Darkness* is a slide archive of darkness, spanning billions of years captured at different times and places throughout the universe—an ongoing life-long project that compiles images and information

Paterson hand-writes and posts a brief letter announcing the star's death—a characteristically spare yet intimate gesture that collapses the distance between her audience and the most distant edges of the cosmos.

케이티 패터슨 展

-케이티 패터슨-



Vatnajökull (the sound of) / Katie Paterson / Hydrophone, mobile, phone, DE500, variable. //

P K M GALLERY

2011. 03. 24 ▶ 2011.05.06

Mon-Fri 10:30~18:00 / Closed:Sat,Sun

110-210 서울 종로구 화동 137-1

<http://www.pkmgallery.com>

Tel. 02-734-9467

PKM Gallery | Bartleby Bickle & Meursault 는 최근 영국에서 가장 호평을 받고 있는 떠오르는 젊은 작가들 중 한 명인 케이티 패터슨 (Katie Paterson, b. 1981)의 신작과 근작들로 이루어진 개인전을 개최한다.

최근 런던 Observer지에 의해 “영국 최고의 신인 아티스트 (Best New Artists in Britain)” 네 명 중 한 명으로 선정된 케이티 패터슨은 2008년 옥스포드 현대미술관 (Modern Art Oxford)에서 열린 개인전에서 처음으로 대중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녀가 런던 슬레이드 파인 아트 스쿨 (Slade School of Fine Art, London)을 졸업한 지 일 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다.

그 전시에서 보여진 작품 Vatnajökull (the sound of)는 아이슬란드 빙하에 묻어놓은 마이크로폰을 오디오 장치와 모바일폰 선에 연결시켜 발신자가 세계 어느 곳에 있던 실시간으로 그 빙하의 느리게 녹아가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작품은 개념적인 면에서 매우 충실하면서 동시에 시적인 인상을 주는 또 다른 작품, Earth-Moon-Earth (Moonlight Sonata Reflected from the Surface of the Moon)과 함께 전시되었다. 패터슨은 베토벤의 익숙한 악보를 모리스 부호로 바꾼 뒤 라디오 웨이브 방식으로 그 부호들이 달에 부딪혀 반사되도록 한다. 이렇게 임의적이지만 성세하고 잊혀지지 않는 방법을 통해 분화구로 덮힌 달 표면에 의해 분해되어서 돌아오는 신호들을 얻게 된다. 달 자체에 의해 변경되고 재구성되어진 월광 소나타인 셈이다.

“Katie Paterson exhibition.” *Art in Smart* March 2011, Seoul.

[전시시간]

월-금 10:30~18:00/휴관 토,일

두 작품 모두 갤러리 공간에 맞게 작가의 조정을 거쳐 이번 전시에 포함되었다. 다른 작품들 역시 패터슨의 대표작으로서 리서치를 바탕으로 한, 시적이면서도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방식으로 자연, 환경, 우주에 대한 생각과 관련된 여러 전문분야의 실행들이 바탕이 된 대표작들이다. 재현에 있어 감정을 많이 드러내지 않으며 표현을 아끼는 것과는 달리 그녀의 작품은 다양한 기술 전문가들과 오랜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협력한 결과물이다.

예를 들어, Light Bulb to Simulate Moonlight는 달빛과 동일한 파장을 가진 전구를 만들기 위해 오스람(OSRAM)과 협력하여 개발한 백열 전구 한 세트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History of Darkness는 우주 전체의 각기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포착된 어두움에 대한 십억년에 걸친 슬라이드 아카이브이다. 이것은 천문대에서 모은 이미지와 정보를 따라 일생을 걸쳐 계속해서 진행될 장기 프로젝트이다. 다른 작업들에서와 마찬가지로 The Dying Star Letters를 작업하면서도 패터슨은 천문학자들과 우주학자들이 보내오는 감마광선 파열, 별의 죽음을 알리는 현상에 대한 기술적인 통지들을 참고하였다. 패터슨은 그 통지들을 받은 뒤에 별의 죽음을 발표하는 간단한 친필편지를 붙인다. 관람객과 먼 우주 끝 사이의 거리를 무너뜨리는, 그녀의 다른 작업들이 그러하듯이, 절제되어 있지만 친밀한 표현이다.

글래스고 (Glasgow)에서 1981년에 태어난 케이티 패터슨은 2004년 에든버러 컬리지 오브 아트 (Edinburgh College of Art)에서 학사학위, 그리고 2007년 런던 슬레이드 파인 아트 스쿨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녀는 뉴욕 제임스 코헨 갤러리 (James Cohan Gallery, 2011), 옥스포드 현대미술관 (Modern Art Oxford, 2008), 런던 알비온 갤러리 (Albion Gallery, 2008), 런던 매튜 본 갤러리 (Matthew Bown Gallery, 2007)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또한 비엔나 쿤스트할레 (Kunsthalle Wien, Vienna)의 <스페이스. 꿈에 관하여> (Space. About a Dream, 2011), 영국 게이츠헤드 발틱 컨템포러리 아트센터 (BALTIC Centre for Contemporary Art, Gateshead, UK)의 <케이지 믹스: 조각 & 소리> (Cage Mix: Sculpture & Sound, 2010), 스톡홀름 보니에 콘스탈 (Bonniers Konsthall)의 <라이프 폼> (Lifeforms, 2009), 뉴욕 <퍼포마09> (Performa, 2009), 토론토 파워 플랜트 현대미술센터 (The Power Plant)의 <유니버설 코드> (Universal Code, 2009), 런던 테이트 브리튼 미술관 <알터모던: 테이트 트리엔날레> (Altermodern: Tate Triennial, 2009)와 같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그룹전에 선정되었다.



Vatnajökull (the sound of), 2007/8. / Katie Paterson / Hydrophone, mobile, phone, DE500, white neon, variable. / /

케이티 패터슨은 에든버러 컬리지 오브 아트 (Edinburgh College of Art)의 존 플로렌트 스톤 펠로우(John Florent Stone Fellow)이며, 런던대학교 (University College London) 천체물리학 그룹의 레지던스 작가이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분야들, 아트를 포함한 디자인, 패션, 음악 등의 분야에서 영국의 재능있는 젊은 작가를 뽑기 위해 볼보 (Volvo)에서 매년 주최하는 크리에이티브 30 어워드 (Creative 30 Award)의 2008년 1회 수상자이다. 케이티 패터슨은 현재 독일 베를린에 거주하며 작업 중이다.



Inside this desert lies the tiniest grain of sand / Katie Paterson / Silver gelatin photograph / 120 x 80 cm / 2010



History of Darkness / Katie Paterson / Ongoing slide archive / /



Langjökull, Snæfellsjökull, Solheimajökull / Katie Paterson / digital films, 1hr 57m. // 2007

케이티 패터슨 (Katie Paterson) 개인전

Posted by dosilife on 3/26/11 • Categorized as 전시



Vatnajökull
(the sound of)
2007/8

최근 영국에서 가장 호평을 받고 있는 떠오르는 젊은 작가들 중 한 명인 케이티 패터슨(Katie Paterson, 1981)의 개인전이 종로구 화동 피케이엠갤러리 바틀비 비클 앤 뢰르소(P K M GALLERY | Bartleby Bickle & Meursault)에서 5월 6일까지 열린다.

케이티 패터슨은 지난해 2010년 10월 영국 <옵저버>(Observer)지에 의해 “영국 최고의 신인 아티스트 (Best New Artists in Britain)” 네 명 중 한 명으로 었고, 얼마전 도시생활에서 소개한 <젠틀우먼>(THE GENTLEWOMAN)의 3번째 이슈 2011년 봄/여름호에 인터뷰가 실리는 등 여러 미디어에 의해 소개되었다.

케이티 패터슨은 런던 슬레이드 파인 아트 스쿨 (Slade School of Fine Art, London)을 졸업한 지 일 년 만인 2008년 옥스포드 현대미술관 (Modern Art Oxford)에서 열린 개인전에서 처음으로 대중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그 전시에서 보여진 작품 <Vatnajökull (the sound of)>는 아이슬란드 빙하에 묻어놓은 마이크로폰을 오디오 장치와 모바일폰 선에 연결시켜 발신자가 세계 어느 곳에 있든 실시간으로 그 빙하의 느리게 녹아가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함께 전시된 <지구-달-지구(달 표면에 반사된 월광 소나타)Earth-Moon-Earth (Moonlight Sonata Reflected from the Surface of the

케이티 패터슨
Katie Paterson

2011년 3월 24일 - 5월 6일
MARCH 24 - MAY 6, 2011

Moon)>는 개념적인 면에서 매우 충실하면서 동시에 시적인 인상을 주었다. 패터슨은 베토벤의 익숙한 악보를 모리스 부호로 바꾼 뒤 라디오 웨이브 방식으로 그 부호들이 달에 부딪혀 반사되도록 한다. 이렇게 임의적이지만 섬세하고 잊혀지지 않는 방법을 통해 분화구로 덮힌 달 표면에 의해 분해되어서 돌아오는 신호들을 얻게 된다. 달 자체에 의해 변경되고 재구성되어진 월광 소나타인 셈이다. 두 작품 모두 갤러리 공간에 맞게 작가의 조정을 거쳐 이번 전시에 포함되었다.



Katie Paterson, Light bulb to Simulate Moonlight

다른 작품들 역시 패터슨의 대표작으로서 리서치를 바탕으로 한, 시적이면서도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방식으로 자연, 환경, 우주에 대한 생각과 관련된 여러 전문분야의 실행들이 바탕이 된 대표작들이다. 재현에 있어 감정을 많이 드러내지 않으며 표현을 아끼는 것과는 달리 그녀의 작품은 다양한 기술 전문가들과 오랜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협력한 결과물이다.

예를 들어, <달빛 전구Light Bulb to Simulate Moonlight>는 달빛과 동일한 파장을 가진 전구를 만들기 위해 오스람(OSRAM)과 협력하여 개발한 백열 전구 한 세트 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암흑의 역사History of Darkness>는 우주 전체의 각기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포착된 어두움에 대한 십억년에 걸친 슬라이드 아카이브이다. 이것은 천문대에서 모은 이미지와 정보를 따라 일생을 걸쳐 계속해서 진행될 장기 프로젝트이다. 다른 작업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죽은 별 편지The Dying Star Letters>를 작업하면서도 패터슨은 천문학자들과 우주학자들이 보내오는 감마광선 파열, 별의 죽음을 알리는 현상에 대한 기술적인 통지들을 참고하였다. 패터슨은 그 통지들을 받은 뒤에 별의 죽음을 발표하는 간단한 친필편지를 붙인다. 관람객과 먼 우주 끝 사이의 거리를 무너뜨리는, 그녀의 다른 작업들이 그러하듯이, 절제되어 있지만 친밀한 표현이다.



● 케이티 패터슨 (Katie Paterson)은 에든버러 컬리지 오브 아트 (Edinburgh College of Art)의 존 플로런트 스톤 펠로우(John Florent Stone Fellow)이며, 런던대학교 (University College London) 천체물리학 그룹의 레지던스 작가이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분야들, 아트를 포함한 디자인, 패션, 음악 등의 분야에서 영국의 재능있는 젊은 작가를 뽑기 위해 볼보 (Volvo)에서 매년 주최하는 크리에이티브 30 어워드 (Creative 30 Award)의 2008년 1회 수상자이다. 케이티 패터슨은 현재 독일 베를린에 거주하며 작업 중이다.

[PKM Gallery-케이티 패터슨(Katie Paterson 1981~)] Bartleby Bickle & Meursault 3.24-5.6

<http://www.pkmgallery.com/>



최근 영국에서 가장 호평을 받고 있는 떠오르는 젊은 작가들 중 한 명인 케이티 패터슨(Katie Paterson)의 신작과 근작들로 이루어진 개인전을 열린다. 최근 런던 Observer지에 의해 '영국 최고의 신인 아티스트 (Best New Artists in Britain)' 네 명 중 한 명으로 선정되었다. 런던 슬레이드 파인 아트 스쿨(Slade School of Fine Art, London) 출신인 그는 2008년 옥스포드 현대미술관(Modern Art Oxford)에서 열린 개인전에서 처음으로 대중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그 전시에서 보여진 작품 The sound of는 아이슬란드 빙하에 묻어놓은 마이크로폰을 오디오 장치와 모바일폰선에 연결시켜 발신자가 세계 어느 곳에 있든 실시간으로 그 빙하의 느리게 녹아가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 작품은 개념적인 면에서 매우 충실하면서 동시에 시적인 인상을 주는 또 다른 작품, Earth-Moon-Earth (Moonlight Sonata Reflected from the Surface of the Moon)과 함께 전시되었다. 패터슨은 베토벤의 익숙한 악보를 모리스 부호로 바꾼 뒤 라디오 웨이브 방식으로 그 부호들이 달에 부딪혀 반사되도록 한다. 이렇게 임의적이지만 섬세한 방법을 통해 분화구로 덮힌 달 표면에 의해 분해되어서 돌아오는 신호를 얻게 된다. 달 자체에 의해 변경되고 재구성되어진 월광 소나타인 셈이다.

두 작품 모두 갤러리 공간에 맞게 작가의 조정을 거쳐 이번 전시에 포함되었다. 다른 작품 역시 패터슨의 대표작으로서 리서치를 바탕으로 한, 시적이면서도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방식으로 자연, 환경, 우주에 대한 생각과 관련된 여러 전문분야의 실행이 바탕이 된 작품들이다. 재현에 있어 감정을 많이 드러내지 않으며 표현을 아끼는 것과는 달리 그녀의 작품은 다양한 기술 전문가들과 오랜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협력한 결과물이다.

월광 소나타를 달이 연주한다면...

개념미술 하면 일단 어렵다. 철학과 자의식으로 중무장되어 있다 보니 알쏭달쏭한 퀴즈 같아서다. 가령 데미안 허스트는 호주산 상어 한 마리를 통째로 포르말린 용액에 담가두고는 ‘살아 있는 자의 마음속에 있는 죽음의 육체적 불가능성’이란 제목을 달아놨다. 제목을 여러번 읽어봐도 이게 대체 뭘소린가 싶다. 가장 남는 장사는 입을 꼭 다문 채 알듯 모를 듯 약한 고갯짓을 하는 것뿐이다. 그렇다면 이런 개념미술은 어떨까. 달이 연주하는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를 들려주겠다고 하면? 지구 온난화로 사라지고 있는 빙하의 물 떨어지는 소리를 빙하 얼음으로 만든 LP판으로 들려주겠다고 하면? 서울 화동 PKM갤러리 ‘케이티 페터슨 개인전’에서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다.



▲ 아이슬란드 빙하의 물 녹는 소리를 들려주기 위해 얼음 LP판(왼쪽)을 쓴 작품과 무선전파를 활용한 작품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를 응용한 작품 ‘지구-달-지구’(Earth-Moon-Earth)의 제작 방식은 이렇다. 월광 소나타 악보를 모스 부호로 전환한 뒤 이를 달에다 쏜다. 달에 부딪혀 반사되어 나오는 음향을 녹음한 뒤 두 가지 방식으로 복원한다. 하나는 모스 부호 그 자체, 다른 하나는 이 부호를 컴퓨터 자동 연주로 재생시킨 피아노 버전이다. 전파로 이뤄진 작업이다 보니 끊기거나 어색하게 뭉개진 부분들이 있는데, 이를 고스란히 반영한다. 전시장 1층에서는 피아노 버전을,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위에서는 모스 부호 버전을 들어볼 수 있도록 해뒀다.

또 아이슬란드 빙하지역에서 얼음덩이 3개를 가져다 LP판 음반을 만들었다. 여기에다 빙하가 녹는 소리를 녹음해둔 뒤 이를 고스란히 틀어놓는다. 당연히 얼음은 녹기 때문에 처음 몇 분간은 빙하 물방울 소리가 온전히 들리다가 나중엔 얼음 표면을 긁는 소리만 남는다. 얼음으로 LP판을 만드는 게 가능할까.

페터슨은 “안 써본 방법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방법을 써봤는데 치과용 드릴 기구로 기어코 만들어 내고야 말았다.”면서 “나 스스로도 될까 싶었는데 성공적이어서 굉장히 만족스럽

다.”고 말했다. 다른 몇몇 작품에서는 약간의 장난끼도 느껴진다. 4분 33초간달과 주고받은 ‘침묵’을 기록해둔 작품도 있는데, 이는 백남준의 스승이었던 전위음악가 존 케이지의 ‘4분 33초’(연주자들이무대에 오른 뒤 4분 33초간 아무런 연주 없이 가만히 있다가 퇴장하는 작품)를 본뜬 것이다.

우주를 매일매일 찍어 자그마한 사진으로 출력해둔 ‘어둠의 역사’(History of Darkness)도 마찬가지다. ‘날짜그림’으로 유명한 일본 출신 개념미술가 온 가와라의 작품과 비슷하다. 전세계 천문학자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한개의 별이 죽을 때마다 간단하게 편지를 써서 기록해둔 작품, 달빛과 똑같은 파장을 내는 전구를 제작해 걸어둔 작품 등도 눈에 띈다.

자의식과 철학에 치우치다 보니 파격적이고 도발적인 기존의 개념미술과는 다른, 소박한 아날로그적 감성이 돋보이는 개념미술을 만들어 낸 셈이다. 페터슨 스스로도 자신의 인기에 대해 “작품을 만들 때 무선전파나 오디오 같은 모던한 기술을 적용하지만 궁극적으로 내 작품이 다루는 대상이 옛 전통 미술의 소재들인 자연과 풍경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작업 초점에 대해서도 “우주, 달, 빙하처럼 친숙하지만 너무 거대해서 접하기 어려운 대상들을 쉽게 상상하고 만져볼 수 있는 인간적인 규모로 압축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페터슨은 영국에서 ‘2010최고 신인 아티스트’로 선정됐다. 앞서 2008년에는자동차회사 불보가 문화예술 전 분야에서 서른살 이하 예술가 가운데 가장 유망한 사람 1명에게 주는 상 ‘크리에이티브 서티’(Creative 30)도받았다. 전시는 5월 6일까지. (02)73-9467.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케이티 패터슨展

2011/03/24 21:20

3. 24 ~ 5. 6 PKM 갤러리 | Bartleby Bickle & Meursault



케이티 패터슨 <Vatnajökull(the sound of)> 하이드로폰 모바일폰 DE500 가변설치 2007
©Katie Paterson and PKM Gallery | Bartleby Bickle & Meursault

최근 런던 《옵저버(Observer)》지에 의해 “영국 최고의 신인 아티스트” 4명 중 한 명으로 선정되며 호평을 받고 있는 케이티 패터슨(Katie Paterson)의 개인전이 열린다. 작가는 자연 환경 우주에 대한 생각과 관련된 여러 전문 분야의 실행을 참고하는 등 풍부한 리서치를 바탕으로 시적이면서도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방식으로 작업한다. 이번 전시를 위해 갤러리 공간에 맞도록 구성된 근작과 신작을 선보인다.

<Vatnajökull(the sound of)>는 아이슬란드 빙하에 묻어놓은 마이크로폰을 오디오 장치와 휴대폰 선에 연결시켜 발신자가 세계 어느 곳에 있던 실시간으로 빙하가 느리게 녹아가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한 작업이다. <Earth-Moon-Earth(Moonlight Sonata Reflected from the Surface of the Moon)>는 베토벤의 악보를 모스부호로 변환해 달에 반사되도록 재구성한 ‘월광 소나타’로 개념적인 면에서 매우 충실한 동시에 시적이다.

작가는 재현에 있어 감정을 많이 드러내지 않고 표현을 아끼는 반면, 다양한 기술 전문가들과 오랜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협력한다. 예를 들어, 달빛과 동일한 파장을 지닌 백열전구 한 세트에 구성된 <Light Bulb to Simulate Moonlight>는 오스람(OSRAM)과 협력한 작품이며, 장기 프로젝트 <History of Darkness>는 우주 전체의 각기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케이티 패터슨 <History of Darkness> 진행 중인 슬라이드 아카이브 2010
©Katie Paterson and PKM Gallery | Bartleby Bickle & Meursault

포착된 어둠에 대한 십 여년에 걸친 슬라이드 아카이브이다. 별의 죽음을 발표하는 친필편지 작업 <The Dying Star Letters>는 천문학자와 우주학자들로부터 감마광선 파열, 별의 죽음을 알리는 현상들을 참고하고 통지받은 후 이루어진다. 관객과 먼 우주 사이의 거리를 무너뜨리는 이 작품은 작가의 다른 작업들이 그러하듯 절제되어 있지만 친밀한 표현이다.

● 케이티 패터슨(Katie Paterson)

1981년 글래스고 출생. 현재 베를린에 거주하며 작업. 에든버러 컬리지 오브 아트 학사 및 존 플로런트 스톤 펠로우(John Florent stone Fellow). 런던 슬라이드 파인 아트스쿨 석사. 런던대 천체물리학그룹 레지던스 작가. 뉴욕 제임스 코헨 갤러리(2011), 옥스퍼드 현대미술관(2008), 런던 알비온 갤러리(2008), 런던 매튜 본 갤러리(2007)에서 개인전. <스페이스. 꿈에 관하여>(비엔나 쿤스트할레, 2011), <퍼포마09>(뉴욕) <유니버설 코드>(토론토 파워플랜트 현대미술센터, 2009), <얼터 모던: 테이트 트리엔날레>(런던 테이트 브리튼미술관, 2009) 등 국제적으로 중요한 그룹전에 선정. 볼보(Volvo)가 주최하는 '크리에이티브 30 어워드' 1회(2008) 수상자.



[작가 인터뷰] 케이티 패터슨

2011/03/23 15: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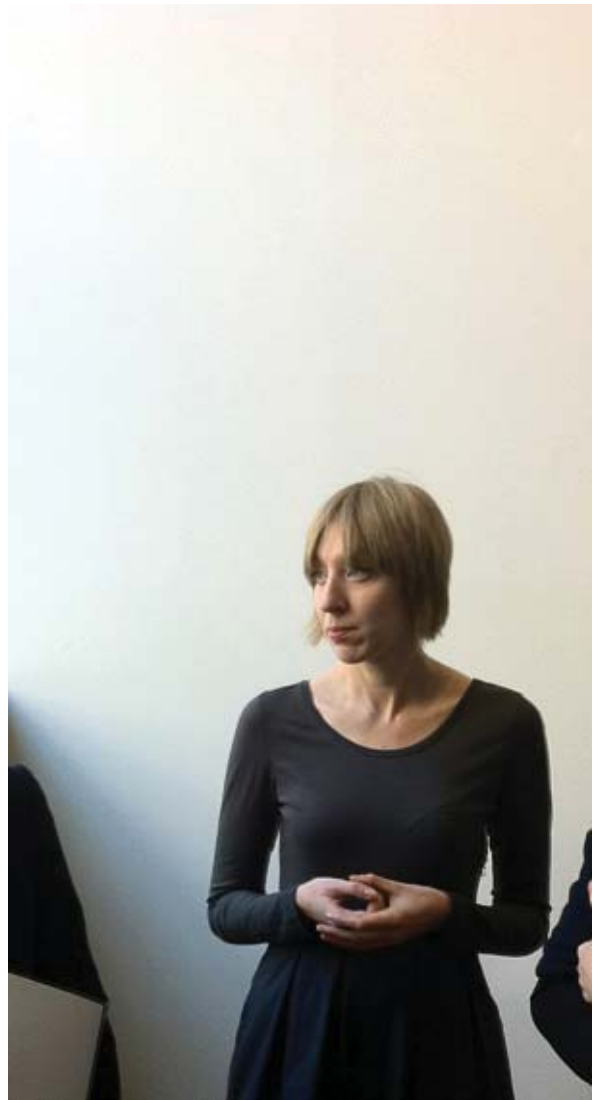
종로구 화동에 있는 PKM 갤러리와 Bartleby Bickle & Meursault에서 영국 작가 케이티 패터슨(Katie Paterson)의 개인전 (2011.3.24~5.6)이 열린다. 런던 옵저버 (Observer)》지가 선정한 “영국 최고의 신인 아티스트” 중 한 명인 그는 아시아에서 처음 열리는 이번 개인전을 위해 내한했다.

art_자연 현상으로 작품을 제작할 때는 여러 변수가 있을 듯하다. 이를 소재로 미적 오브제로서의 ‘작품’이라는 최종 결과물을 제작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무엇인가?

케이티 패터슨_내가 다루는 주제는 넓은 의미에서 자연 풍경이다. 이런 주제는 미술사에서 전통적인 것들이다. 이를 과학적으로 다루는 방법은 아직 현대미술에 많이 적용되지 않았다. 나는 풍경, 시간, 역사에 관심이 많다. 하지만 여기에서 시간은 ‘인간적인 역사’가 아니라 영겁의 시간이 축적된 ‘지리학적 시간’을 의미한다. 가령 나의 작품 <바트나빙하>(2007~2008)는 아이슬란드 바트나빙하 남쪽 끝에 있는 빙하호의 실제 빙하소리를 녹음한 작품이다. 관람객이 전시장에 전시된 작품의 네온사인 번호로 전화를 걸면 빙하 아래 물 흐르는 소리를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다. 빙하라는 사물에 축적된 오랜 시간과 관람객이 전화를 걸어 소리를 듣는 짧은 시간의 극적인 대비같은 것... 우주, 풍경, 대지와 같은 것들에 접근하되, 나는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없거나 볼 수 없거나 인식할 수 없는 것들을 관람객이 친밀하게 느끼도록 아주 인간적인 스케일로 작품을 제작한다.

art_전시된 작품을 보면 자연 현상을 소재로 했을 뿐, 개념미술 자체에 대한 발언처럼 보기도 한다. 당신의 작품은 선배 개념미술가들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케이티 패터슨_나는 무(無)를 다루는 개념미술가들과의 관계도 인식하고 있다. 1960년대 과정을 중시했던 작가들과 존 케이지의 작품이나 온 카와라의 작품은 나의 작품과 많은 관련이 있다. 전시 출품작인 <Earth-Moon-Earth (4'33'')> (2007)는 직접적으로 존 케이지의 <4'33'')>(1954)을 연상시키며, 컬렉터에게 1년 동안 별의 죽음을 편지로 전하는 <The Dying Star Letters>(2010)는 온 카와라의 메일 아트와 관련된 것 같다.





작품 사진 및 작가약력 (PKM갤러리와 Bartleby Bickle & Meursault 제공)

글래스고(Glasgow)에서 1981년에 태어난 케이티 패터슨은 2004년 에든버러 컬리지 오브 아트(Edinburgh College of Art)에서 학사학위, 그리고 2007년 런던 슬레이드 파인 아트 스쿨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녀는 뉴욕 제임스 코헨 갤러리(James Cohan Gallery, 2011), 옥스포드 현대미술관(Modern Art Oxford, 2008), 런던 알비온 갤러리(Albion Gallery, 2008), 런던 매튜 본 갤러리(Matthew Bown Gallery, 2007)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또한 비엔나 쿤스트할레(Kunsthalle Wien, Vienna)의 <스페이스. 꿈에 관하여> (Space. About a Dream, 2011), 영국 게이츠헤드 발틱 컨템포러리 아트센터(BALTIC Centre for Contemporary Art, Gateshead, UK)의 <케이지 믹스: 조각 & 소리> (Cage Mix: Sculpture & Sound, 2010), 스톡홀름 보니에 콘스탈(Bonniers Konsthall)의 <라이프 폼



>(Lifeforms, 2009), 뉴욕 <퍼포마09>(Performa, 2009), 토론토 파워 플랜트 현대미술센터(The Power Plant)의 <유니버설 코드>(Universal Code, 2009), 런던 테이트 브리튼 미술관 <알터모던: 테이트 트리엔날레>(Altermodern: Tate Triennial, 2009)와 같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그룹전에 선정되었다.

케이티 패터슨은 에든버러 컬리지 오브 아트(Edinburgh College of Art)의 존 플로렌트 스톤 펠로우 (John Florent Stone Fellow)이며, 런던대학교(University College London) 천체물리학 그룹의 레지던스 작가이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분야들, 아트를 포함한 디자인, 패션, 음악 등의 분야에서 영국의 재능 있는 젊은 작가를 뽑기 위해 볼보(Volvo)에서 매년 주최하는 크리에이티브 30 어워드(Creative30 Award)의 2008년 1회 수상자이다. 케이티 패터슨은 현재 독일 베를린에 거주하며 작업 중이다.

Posted by 김재석

‘영국이 주목하는 젊은작가’ 케이트 페터슨 한국서 첫 개인전

24일부터 화동 PKM갤러리서

등록 2011-03-23 13:57

수정 2011-03-23 15:45



케이트 페터슨의 '바트나이오쿠를'. /PKM갤러리 제공

(아주경제 박현주 기자) 서울 화동 PKM갤러리는 24일부터 영국현대미술계가 가장 주목하는 차세대 아티스트 케이트 페터슨(30) 개인전을 연다.

케이트는 시적인 감수성과 과학적인 자료들을 바탕으로 개념작업을 추구하는 작가다.

PKM갤러리는 "케이트는 모스부호로 전환 된 베토벤의 월광소나타를 달의 표면으로 송신 한 뒤 다시 반사되어 지구로 돌아온 시그널을 악보화하여 자동 피아노로 연주한 작품으로 단숨에 평단의 주목을 받게 됐다"며 "최근 몇년간 언론과 미술계가 주목하는 젊은 작가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케이트는 영국 일간지 가디언지에서 2010 영국 최고의 신인 아티스트, 글로벌 자동차 기업 볼보가 재정한 'Creative 30'의 2007년도 수상자로 선정됐었다.

Creative 30은 모든 예술분야 - 미술, 음악, 무용, 연극, 문학 등에서 현재 활동하는 30세 이하의 전도유명한 아티스트 단 '한 명'에게 수여되는 예술상이다.

Park Hyeon-ju. "Acclaimed young British artist Katie Paterson's first solo exhibition in Korea." Ajou Economy (Seoul) 23 March 2011.

비평가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작가는 2008년 옥스포드 현대미술관 개인전에 이어 2009년 런던 테이브 브리튼 미술관의 테이트 트리엔날레에 참여했고 2011년 뉴욕 제임스 코헨갤러리에서의 개인전을 가졌다.

국내는 물론 아시아에 첫선을 보이는 케이티의 이번 전시는 PKM 갤러리와 바틀비 비클 & 외르소에서 동시에 개최된다. 전시는 5월 6일까지.(02)734-9467

박현주 기자
hyun@ajnews.co.kr

COPYRIGHT © AJU BUSINESS. ALL RIGHTS RESERVED.



Katie Paterson X PKM Gallery

March 18th, 2011 by Chloe Gallagher



For her solo exhibit opening this month in Seoul at PKM Gallery, Katie Paterson will be showing new work, as well as revisiting some of her well known earlier pieces. *Vatnajökull (the sound of)*, a piece originally exhibited in her now famous solo show at Modern Art Oxford, connects a microphone embedded in an Icelandic glacier to audio equipment and a mobile phone line, allowing callers from anywhere in the world to listen in real time to the slow melting of the glacier. Also on view will be a piece entitled *Earth-Moon-Earth (Moonlight Sonata Reflected from the Surface of the Moon)*. For the piece Paterson took the notes of Beethoven's Moonlight Sonata and transcribed them into Morse code which was sent via radio waves to bounce off the surface of the moon. The result is an eerily beautiful rendition of a classic piece of musical history, degraded and remixed by the cratered surface of the moon; recognizable but affected. Newer works highlight the artist's involved process as much as her natural sense of wonder and intellectual curiosity. *As The World Turns* presents a turntable playing Vivaldi's *Four Seasons* synced to the rotation of the earth, one revolution every 24 hours. *The Dying Star Letters* are hand written notes announcing the death of stars, based on collected notifications of gamma ray bursts. In anthropomorphizing these phenomena and attaching such a personal gesture, Paterson collapses the distance between her audience and the cosmos.





Paterson gained international recognition with her 2008 solo show at Modern Art Oxford a year after her graduating with her MFA from the Slade School of Fine Art in London. She has since cultivated an impressive exhibition history and generous critical accolades, including a recent mention as one of the “Best New Artists in Britain” in an October article in the *Observer*. She has shown at numerous museums and galleries around the world including the Tate Britain, The Power Plant in Toronto, and the BALTIC Center for Contemporary Art. She has had solo shows at James Cohan Gallery in New York, and Albion Gallery and Matthew Bown Gallery in London. She holds a John Florent Stone Fellowship at Edinburgh College of Art and is the Leverhulme Artist in Residence in the Astrophysics Group at the University College London. Paterson takes a carefully researched, multidisciplinary approach to investigating themes of nature, environment and astronomy. Her work is often minimal, even technical, in its execution, but closer inspection reveals a thoughtful, poetic sentiment. Though the work is often generated through the exploration of complex subjects, and lengthy collaboration with experts in highly specialized fields, its power does not hinge on complicated prerequisite knowledge. Instead the requirements for enjoyment can be fulfilled with a natural sense of curiosity and a willingness to give oneself over to sense of awe produced by naturally occurring phenomena and their delicate, unique beauty.



For one of my favorite pieces, *Inside this desert lies the tiniest grain of sand*, Paterson took a grain of sand from the Saharan desert and chiseled it down to 0.00005mm, using special techniques in nanotechnology. She then took the grain of sand back to the desert, and buried it. The subtlety and depth of concept are intriguing coming from such a young artist. I look forward to seeing where her curiosity and talent take her next.

Katie Paterson
March 24 – May 6, 2011 PK M GALLERY |
BARTLEBY BICKLE & MEURSAULT
137-1 Hwa-dong, Jongro-gu
Seoul, 110-210 Korea

마그리트·프란시스·웨민준...봄화단 수놓는 외국 거장들

입력시각 : 2011-03-17 17:25



PKM갤러리가 오는 23일부터 전시할 영국 개념미술가 케이트 패터슨의 '바트나리오쿠를'. PKM갤러리 제공

서울 서초동에 있는 660㎡ 규모의 더 페이지갤러리 전시장. 물감을 흘리고 뿌리고 튀긴 작품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다. 화면마다 그로테스크한 물감 방울과 중첩된 색채들이 현란하다.

미국 추상표현주의의 대가 샘 프란시스(1923~1994)의 작품들이다. 말기암으로 오른 팔 기능을 상실한 뒤 붓을 손에 고정시키고 운몸으로 작업하는 그의 수작들이 관람객을 압도한다.

프란시스를 비롯해 인물사진의 대가 카쉬(캐나다), 웨민준·정판즈·장샤오강(중국), 베르나르 브네(프랑스), 시실리 브라운(영국), 카를로스 아모랄레스(멕시코) 등 국제적인 작가들의 작품들이 봄 화단을 수놓고 있다.



웨민준과 정판즈 장샤오강 왕광이 양샤오빈 평정지 등 중국 현대미술 작가 16명의 작품 60여점은 63스카이아트 미술관에 걸렸다. 7월3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전시회는 '사람(人)' '사회변화(華)' '전통(古)'이라는 세 가지 범주로 나눠 분야별 대표 작가들의 작품으로 꾸며졌다.

캐나다 인물 사진 작가 유섭 카쉬(1908~2002)의 작품도 대거 한국을 찾는다. 오는 26일부터 5월22일까지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펼쳐지는 '카쉬'전을 통해서다. '인물' '손' '풍경' 등 세 가지 테마의 전시에는 오드리 헵번, 윈스턴 처칠, 알베르트 아인슈

해외 미술가 주요 전시 일정

전시	장소	일정	연락처(02)
샘 프란시스	더 페이지갤러리	4월30일까지	3447-0048
중국 현대미술전	63스카이아트 미술관	7월3일까지	789-5663
유섭 카쉬전	세종문화회관	26일~5월22일	399-1111
케이트 패터슨	PKM갤러리	23일~4월6일	734-9467
60년대 이후전	PKM트리니티	23일까지	515-9496
마그리트&자코메티	예화랑	4월6일까지	542-5543
리처드 롱	MC갤러리	4월2일까지	517-4088
베르나르 브네	서울시립미술관	4월14일까지	2124-8800

타인, 파블로 피카소 등 20세기 유명 인사들의 생생한 표정을 잡아낸 작품 120여점이 소개된다. 수학 기호를 소재로 한 베르나르 브네의 회화 작품은 덕수궁 옆 서울시립미술관에서, 멕시코 인기 작가 카를로스 아모랄레스의 작품은 5월21일까지 청담동 송은아트스페이스에서 각각 만날 수 있다.

상업화랑들의 해외 작가 작품전도 줄을 잇고 있다. 예화랑은 올봄 첫 전시로 알베르토 자코메티와 르네 마그리트 작품전을 기획했다. 또 PKM갤러리는 리처드 프린스, 루이스 부르주아, 트레이시 에민, 폴 매카시, 댄 그래햄, 마틴 크리드 등의 작품전에 이어 영국 개념미술가 케이티 패터슨 초대전을 준비 중이다. 국제갤러리는 영국 추상화가 시실리 브라운의 개인전을 5월 중순께 연다.



이같은 해외 작가들의 유치 붐은 미술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 것이다. 국내 화랑, 미술관들은 글로벌화가 대세이므로 외국 유명 화랑들의 국내 지점 개설이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독일의 마이클슐츠 화랑과 프랑스 다국적 화랑 체인 오페라갤러리가 서울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 화랑 또는 유명 작가 재단 측과 교류를 갖고 국제전 경험을 키워나가는 게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한국 미술계의 역량이 커진 것도 한 몫을 하고 있다. 과거에는 외국 작가전을 유치하려 해도 쉽지 않았지만 최근엔 전시회 개최를 타진하기가 무섭게 작품을 내줄 만큼 상황이 변했다.

김윤섭 한국미술경영연구소장은 "국내 작가에 식상한 컬렉터들의 취향 변화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갑 기자 kkk10@hankyung.com



BEARD ROCK [beerd rok]
MUSIC AND SOUNDS MADE AND ENJOYED BY PEOPLE OF THE HIRSUTE PERSUASION.

A style of music made more attractive to the bearded listener because of its apparent discord with the hairless majority.



[Home](#) | [Reviews](#) | [Previews](#) | [Cool Things](#) | [Diary](#) | [Beard Rock Home](#)



Katie Paterson

Katie Paterson is rapidly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career through work that 'reveals the poetic beauty and vastness of the universe'. Katie graduated from Edinburgh College of Art in 2004 and the Slade School of Fine Art, London, in 2007. Her Slade Masters show included *Earth-Moon-Earth*, in which Beethoven's *Moonlight Sonata* was converted into Morse code, beamed onto the moon as a radio wave and returned to earth. The resulting score, with elements distorted and lost by its journey, is heard on a self-playing grand piano. Since then she has been the first artist in residence at University College London's Department of Physics and Astronomy, where she

began *History of Darkness*, a slide collection of photographs of time and space. These are taken with various telescopes, including the most powerful in the world at the W M Keck Observatory in Hawaii. The collection which Katie intends to build throughout her life seems at first sight to be photographs of nothing, black film. In actual fact the numbers on the slide frame reveal the point in space and time that they document. As from earth we see the sun with a delay of eight minutes, because of the time it takes its light to travel, so the further the telescope sees into the universe the further back in time it can reveal, to within 5% of the big bang, believed to have occurred 13.7 billion years ago.

Katie's projects consider not only what lies beyond our world but the earth itself, offering insight into ideas that are so profound our grasp on them is fragile. *Inside this desert lies the tiniest grain of sand*, for instance, was commissioned by the Whitstable Biennial in 2010 and involved taking a grain of sand from the Sahara desert and bringing it back to the UK, where it was cut down to 0.00005mm using nanotechnology. Katie then, carefully, carried this back to the desert and released it. It will never be seen but we know it is there, and that is enough to be moved by its presence. Although the works are meticulously planned and realized in collaboration with authorities in various disciplines, Katie's approach enables a human connection that resonates beyond the intellect, taking consideration of the nature of the world and the universe to another level of appreciation.

Hi Katie, thank you so much for taking the time to do this, I realise that you are very busy. How is life in Berlin? It seems as though there is a strong creative energy there just now?

I'm very happy in Berlin, constantly stumbling across interesting things, people and ideas. There is certainly a strong creative energy here.

You've recently exhibited at Haunch of Venison in London and James Cohan Gallery in New York, what projects and exhibitions are in the pipeline?

"Katie Paterson." *Beard Rock* February 2011, UK.



BEARD ROCK [*beerd rok*]
MUSIC AND SOUNDS MADE AND ENJOYED BY PEOPLE OF THE HIRSUTE PERSUASION.

A style of music made more attractive to the bearded listener because of its apparent discord with the hairless majority.



[Home](#) | [Reviews](#) | [Previews](#) | [Cool Things](#) | [Diary](#) | [Beard Rock Home](#)

I have a solo-show in Korea next month at *PKM Gallery*, Seoul. A commission for 'Constellations' at *Cornerhouse*, Manchester, and *Es Baluard*, Palma, 'Wild Sky' at *Edith Russ Haus*, Oldenburg, and 'Artists are mystics....' at *Ingelby Gallery*, Edinburgh. My residency in the Astrophysics dept, UCL, and projects with Edinburgh College of Art continue throughout the year.

And how do you approach making new work? Do you sit down knowing you've a certain deadline to meet and have a store of ideas that you work through, or is it a more intangible process of inspiration?

It changes from work to work and place to place. Sometimes ideas are latent, the right context comes along, and the place helps inform the idea. Sometimes ideas come from nowhere particularly, or sometimes, like dreams, they form from things I've read and experienced from day to day that morph in unexpected ways. My work loops and circulates, an idea from a previous work can morph into something else, and often there isn't really a beginning or end point. Ideas come from ideas come from ideas...

You have collaborated with experts from other fields, such as science and astronomy. Do you feel a distinction between the disciplines, or rather that you're working towards revealing the same truths but through different means?

Of course there are both distinctions and overlaps. As part of my Astrophysics residency I join physics lectures aimed at postdocs, on subjects like *Gravitational Waves* and *The Magellanic Stream*. The ideas are so abstract I can switch into a whole other mode of thinking. In Astronomy when one question is answered it can lead to another whole stream of questions and so on. Astronomers are dealing with the unanswerable, the unknown, the totally abstract and inconceivable, on a daily basis, a place that I am comfortable in. Common intuition has to be put aside when contemplating that most of the universe is Dark Energy, and each of us and everything we know is 99.999999% emptiness.

When I think about your practice, such *History of Darkness* or *Inside this desert lies the tiniest grain of sand*, I have a perceptible sensation of myself shrinking into insignificance in relation to the vastness of space and time. And actually this is very liberating, reminding me of a healthy sense of perspective and of wonder about all the things I will never be able to fully comprehend. Do you create work with an end experience in mind or is it primarily research led, a spirit of exploration and open to interpretation?

I'm pleased you have that experience! None of my work is created with any attempt to provoke anything in particular. Actually it is very important to me that I have no idea what is coming next, or what the reaction or experience will be. It can be difficult to keep focused on the importance of having no goals or intentions, in the most positive sen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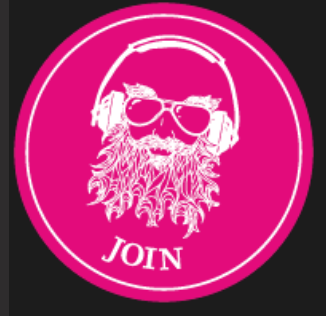
You had something of a desert adventure in making *Inside this desert lies the tiniest grain of sand*, do you have any plans or dreams to travel into space?

"Katie Paterson." *Beard Rock* February 2011, UK.



BEARD ROCK [*beerd rok*]
MUSIC AND SOUNDS MADE AND ENJOYED BY PEOPLE OF THE HIRSUTE PERSUASION.

A style of music made more attractive to the bearded listener because of its apparent discord with the hairless majority.



[Home](#) | [Reviews](#) | [Previews](#) | [Cool Things](#) | [Diary](#) | [Beard Rock Home](#)

Actually, no. I am content with being able to wander through the universe with closed eyes. Similar to the ocean, I prefer to watch the water through the murky surface imagining what lies beneath. The edge of the desert seems just as an immense a place as the centre.

Thanks Katie, and before you go, do you have an artist, band or book recommendation that friends in the UK might not have picked up on yet?

I would recommend 'The Hidden Messages in Water' by Masaru Emoto.

Thank you so much and we wish you the very best with your projects, both the immediate and infinite!